

0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arts change the world

# 대국민 향유증진을 위한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개선방안 연구

2018. 0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 대국민 향유증진을 위한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개선방안 연구

2018년 07월 인쇄

2017년 12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352)

전화 061-900-2100, 2200

팩스 061-900-2365

홈페이지 [www.arko.or.kr](http://www.arko.or.kr)

이메일 [arko@arko.or.kr](mailto:arko@arko.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대국민 향유증진을 위한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개선방안 연구

##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대국민 향유증진을 위한 소외계층 문화순화사업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07월

주관 기관 :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책임 연구 : 염 신 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공동 연구 : 김 은 영 (비전과상상 대표)

공동 연구 : 안 혜 영 (한국문화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연구 보조 : 이 동 근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페 이사장)

연구 보조 : 이 경 아 (한국문화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 목 차

<b>제1장 서론</b>	11
제1절 : 연구 배경과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4
3. 연구의 흐름	15
<b>제2장 문화향유의 개념과 정책 현황</b>	16
제1절 : 문화향유의 개념	17
1. 문화향유 개념의 정의와 흐름	17
2. 문화향유에 영향을 미친 개념들	19
제2절 : 문화향유정책의 흐름	23
1. 제6공화국 이전까지의 문화향유 정책	23
2.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문화예술정책에서 문화 복지	24
3. 참여정부의 문화예술정책	26
4.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28
5. 소결	29
제3절 : 문화향유 정책의 기본 개요	31
1. 문화향유정책의 주요 키워드	31
2. 주요 정책 대상	31
3. 문화향유 확산을 위한 주요 정책 사업	32
<b>제3장 문화향유사업의 현황 분석</b>	34
제1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향유사업 분석	35
1. 예술위원회 문화향유사업의 변천	35
2.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의 현황	46
3.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의 변화	58

4.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의 성과 및 과제 .....	62
제2절 : 국내 · 외 사례 .....	66
1. 국내 문화향유사업의 유형 및 사례 .....	66
2. 국외 문화국가 문화향유사업 사례 .....	85
<b>제4장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순회사업 개선 방향</b> .....	103
제1절 : 문화향유 정책 방향 제시 .....	104
1. 문화향유 정책의 기본 방향 .....	104
2. 문화순회 사업 개선 방향 .....	109
<b>참고문헌</b> .....	116
<b>부록</b> .....	117

## 표 목차

〈표 1-1〉 연구 범위 설정 및 세부 내용	13
〈표 1-2〉 연구의 흐름 기본 틀	15
〈표 2-1〉 중앙정부 문화예술정책 변화	23
〈표 2-2〉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32
〈표 3-1〉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개요	36
〈표 3-2〉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기금규모 추이(2004-2016)	39
〈표 3-3〉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운영체계의 변화	40
〈표 3-4〉 2016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목표	43
〈표 3-5〉 2015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구분 및 내용	44
〈표 3-6〉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대상	44
〈표 3-7〉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추진 주체	45
〈표 3-8〉 2017년 대상별 사업유형	48
〈표 3-9〉 2016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예산 및 순회대상처 공연횟수	49
〈표 3-10〉 유형별 선정단체·수혜자 수	52
〈표 3-11〉 계층별 수혜자 수	53
〈표 3-12〉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모니터링 체계	54
〈표 3-13〉 2016년 현장평가 지표 및 배점	56
〈표 3-14〉 2016년 서면평가 지표 및 배점	56
〈표 3-15〉 2016년 순회대상처 만족도 조사 지표 및 배점	56
〈표 3-16〉 참여연차 및 공연횟수에 따른 예술단체 평가점수 변화	57
〈표 3-17〉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예산추이	58
〈표 3-18〉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평가 내용의 흐름	60
〈표 3-19〉 사업 수혜자 변화 및 만족도 추이(2013~2016)	62
〈표 3-20〉 한화 찾아가는 예술교실 프로그램 내용	69
〈표 3-21〉 우락부락 캠프 프로그램 세부내용	75
〈표 3-22〉 인문독서예술캠프 프로그램 세부내용	76
〈표 3-23〉 더블어숲축제 프로그램 세부내용	79

〈표 3-24〉 ‘ARTS for HOPE’ 프로젝트 프로그램 내용	..... 100
〈표 4-1〉 문화향유 정책 프레임 SWOT 분석	..... 108
〈표 4-2〉 (가칭)문화향유정책협력위원회 역할	..... 110
〈표 4-3〉 사업지 기본정보 범주별 분류 예시	..... 110

## 그림 목차

〔그림 3-1〕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운영체계(2014년 기준)	..... 41
〔그림 3-2〕 2015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운영체계	..... 42
〔그림 3-3〕 사업의 추진체계도	..... 51
〔그림 3-4〕 대상자 맞춤형프로그램 추진절차	..... 51
〔그림 3-5〕 대상자 발굴형프로그램 추진절차	..... 52
〔그림 3-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예산추이	..... 58
〔그림 3-7〕 영국 ‘Creative Partnerships’ 구조	..... 91

# 제1장

## 서론

### 제1절 : 연구 배경과 목적

- 연구의 배경
- 연구의 목적

### 제2절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범위
- 연구의 방법
- 연구의 흐름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연구의 배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5년 출범 이후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문화순회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
- 문화향유의 양적 확대 : 복권기금을 주된 재원으로 추진되어온 문화순회사업은 꾸준히 예산이 증가되면서 수혜자 수가 늘어나 문화향유의 양적 확대를 가져왔음
- 예술생태계에의 기여 : 참여예술단체, 예술가들에게는 문화순회사업을 통한 공공 영역에서의 예술 발표 등 활동의 장으로 활용되며 예술 생태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음
- 문화향유의 질적 성장의 필요성 : 문화순회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형 사업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향유자들이 문화 주체로 성장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유사 사업 증가에 따른 정체성의 재정립 필요성 : 문화부 산하 문화예술 관련 공공 기관 및 지역문화재단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문화향유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면서 예술위 문화순회사업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발생
- 문화소의 형태와 원인의 다변화 : 주로 경제적 원인에 집중되었던 문화소의의 원인이 다변화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문화순회사업의 개선이 필요함

### 2. 연구의 목적

- 문화순회사업의 질적 개선
  - 기존의 문화순회사업이 복권기금이라는 재원 출처에 의해 사업범주를 소외계층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부터 일반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보편적인 문화향유 증진사업으로 확장성을 갖게 되었음
  - 이에 따라 문화순회사업의 정책방향에 확장성과 보편성, 예술적 수월성을 증진시키는 내용적 개선 필요

### □ 문화소외 개념 재검토

- 문화향유나 문화복지정책에서 문화소외의 문제를 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경제적 소외계층에 한정해왔으나 문화현장에서 발생하는 문화소외의 문제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어 왔음
- 사회적 다양성의 증대로 인한 다양한 원인 분석을 통한 문화소외의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개발

### □ 문예진흥기금 성격에 맞는 문화향유사업 제시

- 문예진흥기금 사업에서 문화향유의 기능과 역할이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목표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있음
- 최근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생겨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문화향유 사업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서의 문화향유사업의 특화가 요구됨
- 문화향유를 통한 예술창작의 간접적 지원 및 자발적 예술수요의 증장기적 증대를 유도하는 방향에서의 사업 설계가 필요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 연구 범위는 아래와 같이 크게 6개의 범주로 설정함

〈표 1-1〉 연구범위 설정 및 세부 내용

연구 범위	세부 내용
기존문화순회사업 평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문화순회 사업 개요</li> <li>◦ 문화순회사업의 시계열적 변화 추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적, 제도적 변화</li> </ul> </li> </ul>
타 문화향유 사업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국내의 정부 및 준정부 기구의 문화향유 사업 사례 분석</li> <li>◦ 해외 정부 및 준정부 기구의 문화향유 사업 사례 분석</li> </ul>

문화향유 개념의 재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문화소외 및 문화향유의 개념 정리</li> <li>◦ 문화소외의 사회적 발생 원인 제시</li> <li>◦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 향유 개념 제시</li> </ul>
중·단기 개선방향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향유사업의 방향 제시</li> <li>◦ 방향에 따른 문화순회사업 개선안 제시</li> <li>◦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시범 사업 모델 제시</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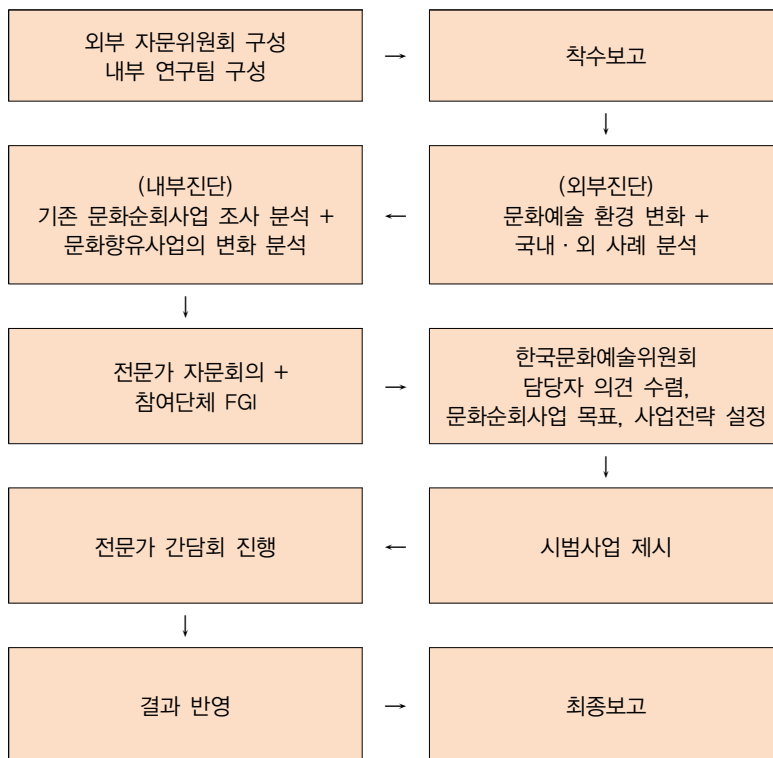
## 2. 연구의 방법

- 연구의 완성도를 갖추기 위해서 외부진단, 내부진단 및 유사 사례를 추가하고, 현장의 실무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연구에 반영
- 외부 진단 : 문화향유의 정책환경 변화 분석
    - 연구에 앞서 이론적 배경으로 국내에서 진행된 문화향유 관련 환경 변화를 면밀하게 살핌
  - 내부 진단 : 그간 진행되어온 예술위원회 문화향유사업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문화향유사업의 변화 추이와 그 원인을 분석함
  - 유사 사례 :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문화순회사업 개선에 참고
  - 현장 진단(FGI)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문화순회사업 참여자 및 전문가들의 진단과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함
  - 중·단기 발전 방안 도출 : 이상의 진단과 분석,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문화향유사업의 중·단기 비전과 전략, 목표를 제시
  - 단계별 액션플랜 제시 : 중·단기 발전 방안을 단계별로 나누어 구체적 문화순회사업 개선 방안 제시

### 3. 연구의 흐름

- 외부 자문위원회와 내부 연구팀을 구성하고, 문화예술 향유정책의 내·외부 환경 진단을 통해 변화과정과 현 단계를 진단함
- 자문회의와 참여단체 FGI,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예술현장 실행단계에서의 제도를 진단하고, 사업전략 설정을 통해 적용 가능한 시범사업을 제시함

〈표 1-2〉 연구의 흐름 기본 틀



## 제2장

### 문화향유의 개념과 정책 현황

#### 제1절 : 문화향유의 개념

1. 문화향유 개념의 정의와 흐름
2. 문화향유에 영향을 미친 개념들

#### 제2절 : 문화향유정책의 흐름

1. 제6공화국 이전까지의 문화향유 정책
2.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문화예술정책에서 문화 복지
3. 참여정부의 문화예술정책
4.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5. 소결

#### 제3절 : 문화향유 정책의 기본 개요

1. 문화향유정책의 주요 키워드
2. 주요 정책 대상
3. 문화향유 확산을 위한 주요 정책 사업

## 제1절 문화향유의 개념

### 1. 문화향유 개념의 정의와 흐름

#### □ 문화향유의 사전적 정의

- 문화를 누리고 즐기는 것
- 과거에는 문화향수라는 개념을 사용해왔으나 보다 능동적으로 문화를 누리고 즐긴다는 의미에서 최근에는 문화향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 현대 사회에서의 문화

- 현대사회의 시대적 특징을 규정짓는 용어 중 하나는 문화
- 문화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왔고 인류의 발전은 문화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좀 더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문화 담론이 성립된 것은 근대사회 이후임
- 한국에서는 20세기 후반부터 제기된 문화라는 용어가 21세기 초반에 이르러서야 대중적으로 수용되며 모든 활동은 문화적인 함의를 가지게 되었음
- 문화는 개인적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 모두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음

#### □ 경제적 소비재로서의 문화

- 20세기 이후 문화와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문화의 경제적 중요성의 증가로 이전에 사회·경제적 영역과 분리되는 비생산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문화가 이제 수익성 높은 경제 영역의 하나로 자리 잡으며 문화산업, 문화콘텐츠와 같은 개념으로 변화
- 이러한 현상은 문화향유 혹은 활동에 대한 욕구를 높이고 문화생산 분야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문화생산이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데 대한 결핍과 소외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음

#### □ 문화향유 개념의 등장

- 국가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복지사회를 지향하게 되면서 문화에 대해서도 복지와 향유에 대한 개념을 만들기 시작함
- 이는 절대적 빈곤의 시대를 벗어나 국민들이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했다

는 것을 전제하여 ‘삶의 질’ 과 관련된 정책 이슈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이전에는 부수적인 분야로 인식되었던 문화부문에 관해서도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 □ 공공정책에서 문화소외에 따른 문화향유의 필요성

- 문화가 더 이상 일부계층의 전유물이 아니고 또한 특별한 활동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향유해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문화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 시민이 되는데 결격사유처럼 느껴지게 되었음
- 반면에 실제로는 시간, 돈 같은 요인들로 인해 문화향유가 쉽지 않은 현실은 대중에게 문화적 소외감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음

#### □ 법적인 근거로서의 문화향유

-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제4조 국민의 권리에서 문화권을 3가지로 나누어 정의하였는데 이 중 창조의 권리, 참여의 권리, 향유할 권리로 구분함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 문화향유 개념에서의 문화<sup>1)</sup>

- 정책의 바운더리에서 사용되는 문화 개념은 인류학적 의미에서의 문화개념과는 다르며 일반적으로 정부의 문화관련 부서가 다루고 있는 영역을 포함
- 즉 예술·공연·문화유산·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창조적 특성이 반영된 부분으로 미적·역사적 감각이 관련된 부분이 주를 이룸

#### □ 미국 국립예술기금(NEA)의 구조개편에서 나타난 문화향유의 중요성 증대

- 1965년 창설된 국립예술기금(NEA)의 경우 1996년 구조개편이 이루어졌음. 이전에 음악, 문학, 미술, 무용, 연극 등의 17개 분과로 분과별 심사가 이루어졌

1) 이정덕(2001), 문화향유 체계에 대한 뉴욕시 사례연구, 「비교문화연구」 제7집 2호, p143~p180

는데 이 시기부터 ‘교육과 접근’, ‘창조와 발표’, ‘협력 입안 안정화’, ‘유산과 보존’ 으로 개편

- 문화예술의 발전, 교육, 향유의 측면이 보다 강조되면서 전문예술가들의 예술 활동 지원에서 일반인의 예술에의 접근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

#### □ 공공정책에서 문화향유에 대한 의무

- 대국민 문화권의 보편적 보장이란 측면에서 문화의 사적 소비 이외의 공공적 향유를 보장할 공공의 책임이 발생함
- 그러나 문화향유는 개인의 취향에 따른 개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향식 프로그램의 일방적 공급으로 해결되지 않음
- 문화향유에 대한 공공의 의무와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소외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환경 변화의 개선을 장기적 과제로 가져가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문화소외에 대해서 행정에서의 ‘보충성 원리’에 입각한 필요에 따른 지원이 필요함

## 2. 문화향유에 영향을 미친 개념들

### 가. 문화의 민주화

#### □ ‘문화의 민주화’의 개념에서의 함의

- 전통적으로 상류층들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문화예술은 엘리트주의적으로 해석
- 점차 문화가 정부의 영역(보호) 하에 들어옴에 따라서 문화는 사회의 노른자위(특정계층)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귀속
- 문화의 민주화(the democratization of culture)는 문화와 문화적 감상/참여(culture and cultural appreciation/participation)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복지국가의 출현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문화감상과 문화적 활동에 대한 참여가 증가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따라서 교육의 증대는 문화의 민주화가 현실화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 작용

#### □ 현실적으로 고급문화를 부르조아 문화로 보는 편견이 존재

- 그러나 고급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질적 우수성에 고급문화의 두드러진 특징
- 누구나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하며 1948년의 인권선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의 문화권(right to culture)은 보편적 권리임
- 사람은 누구나 고급문화를 누릴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고급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비용과 교육의 문제 때문임
- 사람들이 고급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고, 오직 정부만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고급문화는 민주화될 수 있으며 그것은 정부에 의해서만 가능

#### □ 문화의 민주화 개념 형성

- 문화민주화는 정부가 예술센터를 건설함으로써 효과를 내는 것과 같이 중앙집권적 시스템에서 하향적 방식(top down)
- 문화민주화는 역사적으로 발전된 개념으로 문화민주화의 뿌리는 낭만주의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Scruton, 1998: 제4장), 영국의 경우 BBC방송과 예술평의회와 같은 문화적 제도의 창립으로 이어짐
- 문화민주화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고급문화를’ (the best for the most)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
- 이러한 문화민주화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유명작품의 순회전시, 지역 문화센터 건립, 입장권 가격 인하,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와 같은 정책을 실시
- 그러나 좋은 작품의 선정, 방송의 활용, 성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확대 등의 문제가 과제로 남음

#### □ 하향식 구조의 변화

- 초창기에는 문화를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는 과정이 하향식 사업으로 진행
- 정책담당자 의견 중심으로 사업을 집행하던 것으로부터 점차 사람들이 선호하

는 방향으로 정책 주도권이 변화

- 이러한 변화에 의해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술을 감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자신의 예술을 만들어보도록 격려됨
-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이 달성되었는지 아니면 참여의 수준이 기대했던 것처럼 증가되었는지 여부는 논의 여지가 있으며 사회의 바닥수준에서 이뤄지는 문화적 활동을 전혀 진지하게 생각해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술평의회와 밀접한 유대 속에서 이뤄지는 문화적 활동만큼 똑같은 관심이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일부 연구자들은 강하게 주장

#### □ 대중문화시대의 ‘문화의 민주화’

- 매체와 관련하여 보면 ‘문화의 민주화’가 곧 대중이 주체가 되는 문화시대의 도래를 의미하지는 않음
- 대중문화가 대중의 진정한 욕구를 담아내기 보다는, 문화상품을 생산해내는 자본의 이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폭력과 외설이 넘치는 저질 대중문화가 범람하는 것은 대중의 진정한 욕구보다는 허위욕구를 유발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자본과 관련이 있음
- 대중문화시대의 문화상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형 문화향유를 넘어서는 시민의 자발적 문화주체를 형성하는 단계로의 진전이 필요함

### 나. 문화민주주의

#### □ 문화민주주의의 함의

- ‘문화의 민주화’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가 등장
- 문화민주주의는 문화민주화 정책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두된 평등주의적 개념으로 1976년 유럽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문화민주주의 개념이 촉진
- 문화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문화정책은 정부문화정책의 우선적 목표가 불가피하게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고급문화를 지원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와 반대되며, 대중에 호소하는 대중주의(populism)가 고급문화를 위협한다고 하는 문화의 민주화 전략과도 반대

- 문화의 민주화 전략을 주장하는 관점에서는 기존 학계나 평론가들로부터 인정 받은 예술, 즉 우월한 취향의 합법성을 부여받은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함으로써 문화엘리트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는데, 문화엘리트주의자들은 문화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중주의자로 칭하면서, 지리적·인종적·성적·민족적 동등성 개념에 집착한 결과 예술의 질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

#### □ 문화에서의 사회적 배제의 회피

- 문화가 문화향수자의 삶의 방식·교육배경·거주지 등에 따라 자칫 사회적 배제의 요인이나 차별의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음
- 특히 고급문화의 경우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음. 더구나 예술을 위한 예술은 현실 세계를 거부하는 셈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술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의지하게 되는 보상 활동으로서 더 이상 정당화되지 못할 것임
-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아방가르드 예술의 사례

#### □ 문화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지역문화를 생산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서, 상향적이고 자발적 방식

- 문화예술은 순수예술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은 창조적 소양(creative mind)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창조적 활동(creative activity)을 할 수 있음
- 사람들 개개인이 갖는 문화적 역량 확대의 중요성
- 즉 예술가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일반인과 다른, 예술가의 뛰어난 창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님
- 예술가의 창의성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확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수반되어야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의 문화향유 실현이 가능해짐

## 제2절 문화향유 정책의 흐름

## 1. 제6공화국 이전까지의 문화향유 정책

- 한국의 문화예술정책은 1970년대 이전까지는 소극적인 관리 및 국립예술단체, 시설 건립 위주로 추진됨
- 1970년대 초반 「문화예술진흥법」(1972년)이 제정되고 1973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개원, 1974년 문예중흥5개년계획 시작 등을 통해 본격적인 문화예술진흥정책이 시작되었으나 자주적 민족문화 창달이라는 국가주의적 이념이 강조되었으며 유신정권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 문화예술계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관리에 방점이 찍힘
- 한국 문화정책에서 문화향유와 유사한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시혜적 관점에서 소극적으로 진행됨

〈표 2-1〉 중앙정부 문화예술정책 변화

구분	문민정부 및 그 이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배경 및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중 요성 인식 (1990년 문화부 독립)</li> <li>· 문화예술 산업화·정보화 정책기반 조성</li> <li>· 문화복지 실현 위한 문화 기반시설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검열제도 폐지 등 문화예술자율성 신장</li> <li>· 문화예산 1% 달성</li> <li>· 예술기관/단체의 경영효율 및 경쟁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중심 문화 예술정책 강화</li> <li>· 기초예술과 문화산업의 균형발전 도모</li> <li>· 지역, 민간 등 적극적 정책 참여 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적 실용주의에 기초한 정책추진 체계 개편</li> <li>·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 국가 실현 지향</li> <li>· 따뜻한 희망을 주는 예술 정책 개발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융성시대 구축</li> <li>· 문화의 가치를 전 부처로 확산</li> <li>· 국민생활과 현장에서 '문화융성' 실천</li> </ul>
정책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발전 10년 계획(1990)</li> <li>· 신한국 문화 창달 5개년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문화관광 정책(1998)</li> <li>· 문화비전 (200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한국 (2004)</li> <li>· 새예술정책 (200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정부 주요 예술정책 (2008)</li> <li>· 공연계에 활력을, 국민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융성시대, 국가정책의 방향과 과제(2013)</li> </ul>

	· 문화비전 2000(1997)	· 순수예술진흥 기본계획 (2002)	· 전통예술활 성화방안:비 전2010 (2006)	· 계 감동을 (2008)	
핵 심 전 략	· 문예진흥법제 정 및 문예진 흥기금 신설 (1972)  · 예술의 해 사 업 추진 (1991~2000)  · 건축물 미술 장식 설치 의 무화(1995)  · 메세나협의회 창립(1994)	· 공연예술규 제 전면폐지 (1999)  · 학예사 자격 제 도, 무대예 술인 자격제 도입(2000)  · 전문예술법 인 · 단체 지 정제 도입 (2000)  · 국립극장 책 임 운영기관 전환 (2000)	· 문화예술위 원회 출범 (2005)  · 문화예술교 육진흥원 설 립(2005)  · 미술은행 설 립 (2005)  · 국립현대미 술관 책임운 영기관 전환 (2006)  · 예술경영지 원센터설립 (2006)	· 문화바우처 사업 확충  · 문예진흥기 금 지원방식 개선  · 예술창작기 반 시설조성 으로 간접지 원 강화  · 예술인복지 법 제정 (2011)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설 립(2012)	· 문화재정 2% 달성(2017년 까지)  · 문화기본법 제정(2013)  · 지역문화진 흥법 제정 (2014)

## 2.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문화예술정책에서 문화 복지

□ 문민정부를 내세웠던 제6공화국은 문화정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1990년 1월 문화정책 전담 부처인 문화부를 독립하고, ‘문화발전 10개년 계획(1990-1999)’을 수립

-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은 정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문화복지’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
- 이 계획은 ‘모든 국민에게 문화’라는 정책이념을 설정하고, 새로운 전략으로 ‘문화주의’를 표방하면서 관리, 통제, 규제 보다는 참여, 진흥, 조장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은 국민의 문화향수권과 참여권을 신장하고, 문화복지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둔 계획으로, 문화정책의 수용자인 모든 국민을 정책대상으

### 로 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함

- 문화정책과제로는 국민의 문화향수 확대, 문화매개 기능의 확충, 문화창조력의 제고, 국제문화교류의 증진 등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문화적 삶을 통한 복지 수준을 증진하는 것이 문화정책 과제로 강조
  - 문화향유권(당시에는 문화향수권이라 표현)과 참여권의 신장을 위하여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문화적 감성을 심어주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문화부에 생활문화국을 설치하여 생활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확대하였으며, 문화가족운동, 문화소외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움직이는 문화사업, 한국문화학교 운영, 문화의 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 1996년에는 ‘문화복지’를 문화정책의 핵심가치로 부각시키고, 국민들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문화생활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문화복지를 문화권(cultural right)으로 인식하기 시작함
  - 우리나라에서 문화복지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부터 이루어졌지만, 문화 복지이념이 문화정책의 핵심이념으로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음
  - 문화복지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이를 위한 문화 복지 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 1996년에는 문화복지기획단이 설립되고, ‘문화복지 중장기 실천계획’과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문화복지 기본구상’이 수립되면서 문화복지가 문화정책의 핵심과제로 부상함
  - 김영삼 문민정부는 ①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 보장 ②생산적, 예방적 복지 ③참여활성화에 따른 복지공동체 형성을 문화복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생활권단위의 문화기반 시설 확충 및 경영능력 증진, 문화도시 건설 및 지역문화 활성화, 국민들의 평생문화 학습환경 조성사업 등을 중요하게 추진함
  - 1996년부터 시작된 ‘문화의 집 조성 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문화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 활동에 초점을 둔 공간 유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음

- 제6공화국의 문화정책은 국민들의 문화복지를 문화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질적 수준에서는 한계가 있었으나 문화향유를 본격적인 문화정책의 주요 과제로 끌어온 것은 중요한 변화
- 국민의정부(김대중 정부)는 ‘창의적 문화복지국가 건설’ 을 문화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문화를 적극적인 국가발전 자원으로 인식함. 김대중 정부는 ‘문화의 힘’ 을 통한 창의적 문화복지 국가를 추구함
- 국민의 정부에서는 사상 최초로 2000년에 문화부문 세출예산이 정부 전체 세출예산의 1%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2001년에는 문화부문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섬. 특히 문화산업 부문과 관광 부문의 예산이 대폭 증가함
-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에 이어 문화복지 정책과 문화예술 진흥정책을 지속적으로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함
  - － 국민의 문화복지 자체가 정부의 중요한 대국민 서비스의 하나로 인식되었으며, 국민 문화생활의 질적, 양적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공공지원책이 추진됨
  - － 국민의 정부에서 문화복지의 초점은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창의성 배양에 둠

### 3. 참여정부의 문화예술정책

- 노무현 참여정부는 ‘자율’ , ‘참여’ , ‘분권’ 의 3대 가치를 내세우면서 정치와 행정의 개혁, 성장과 분배의 균형,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함. 이에 따라 문화 분야에서도 3대 가치를 문화예술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 개발
  - － 문화행정의 전면 혁신, 문화산업의 국가경제 신성장 동력화, 문화복지의 확산, 문화적 가치를 개인의 삶과 국정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창조적 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기초예술과 예술교육의 진흥, 문화민주주의를 통한 지역문화 창달과 국가 균형발전 등의 과제를 지향함
- 2004년 6월 ‘창의한국, 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 을 발표하였는데, 3대 정책 목표로 ‘창의적인 문화시민(creativity)’ , ‘다원적 문화사회(Diversity)’ ,

‘역동적인 문화국가(vitality)’를 제시함

- 5대 정책방향으로는 ①문화와 개인 : 문화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 ② 문화와 사회 :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③ 문화와 경제 :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화 ④ 문화와 지역 :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 ⑤ 문화와 세계 :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 등임

□ 참여정부에서는 사회적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향수 기회를 증진하는 것이 문화복지 정책의 과제로 고려되었음

- 이러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으로는 복권기금을 활용한 문화나눔 사업 등이 대표적임

□ 참여정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한 문화정책 이념으로 대두

-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문화예술의 기능을 습득하는데 초점을 둔 문화강좌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사회통합, 창의성 증진, 자존감 회복, 사회적 소통역량 강화, 마을공동체 형성 등을 추구
-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정책은 학교, 사회복지기관, 마을, 교도소, 소년원, 군대, 직장,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공동도서관 등 다양한 사회 공간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

□ 참여정부에서의 문화복지 정책은 그 이전까지의 시혜적 관점의 공급형 정책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문화를 함께 즐기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향유’의 개념으로 진전시키고자하는 시도가 주목할 만함

- 문화복지, 문화향유의 관점을 문화의 민주화 차원에서 문화민주주의 차원까지 진전시키고자 했던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프로그램에서 그런 관점의 변화가 충분히 실현되는 데는 한계가 존재했음
- 문화예술교육을 본격적인 정책과제로 삼으며 문화향유의 폭을 다변화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4.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 이명박 정부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 를 문화정책 이념으로 설정하여 선진 일류국가를 추구함
  - 문화를 국민의 삶, 생활방식과 직결된 개념으로 확장하여 사회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의 목표로 문화국가 비전을 제시함. 문화국가는 경제적 수준에 걸맞은 문화적 수준을 가진 국가를 의미함
  - 국내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대외적으로는 문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이는 한편,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임. 이를 통해서 문화가 펼쳐지는 나라, 콘텐츠로 부유한 나라, 브랜드가 있는 관광의 나라, 스포츠로 신명나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함
  - 문화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가의 활력을 창조하며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동인으로 인식함
  -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계획은 2008년 12월에 수립된 『문화비전 2008-2012 : 문화국가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겠습니다.』에 나타나 있음
-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의 3개 기본방향은 ‘문화로 행복한 국민’ ‘소프트웨어가 강한 창조문화국가’ ‘문화로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이중 ‘문화로 행복한 국민’에서 문화복지와 문화향유의 질적 수준 향상을 강조하고 있음
  - ‘문화로 행복한 국민’은 국민의 품격 있는 문화생활을 강조하며,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손쉽게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음으로서 국민 모두가 문화적 삶과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의미
- 이명박 정부에서는 문화복지 정책이 ‘문화와 일상생활의 연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추진됨
  - 생활공감형 문화정책을 표방하고,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강화’, ‘공공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국립박물관 미술관의 무료관람 실시,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등을 수행함

- 참여정부 시기(2006년)에 시작된 ‘문화바우처 사업’ 이 2011년에 대폭 확대되어 수혜자수가 2008년 22만 명에서 2012년 160만 명으로 증가하고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다문화가정 문화예술 체험 및 교육 지원, 농어촌 마을 문화심기 사업, 복권기금을 통한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사업(문화나눔사업)을 추진

#### □ 정부 주도 공급형 문화향수 프로그램으로 회귀

- 이명박 정부 문화복지 정책은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을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문화복지 정책 사업은 주로 중앙정부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과 연계하여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추진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추진체계가 다시 강화되었으며, 이전 정부에서 일부 시도되었던 문화분권 및 문화자치 역량에 대한 관심은 후퇴함
- 또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에 대한 다양한 형식의 지원체계에 관한 논의는 매우 미흡했으며 국민이 문화정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문화정책 체계는 미흡했음
- 이러한 문화민주주의 관점의 후퇴는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이 계량적 성과 달성에 집중되었던 탓이 큰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논의를 할애하는 자발적 문화주체의 형성보다는 빠르게 가시적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공급형 정책으로 돌아가는 원인이 되었음

## 5. 소결

- 문화향유 정책은 ‘문화복지 증진’ 이념과 함께 1980년대부터 문화정책의 이념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지만, 실질적인 정책사업으로 추진되지는 못했으며, 1990년대부터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었음
- 김영삼 문민정부에서 문화복지 이념의 가치 확산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문화복지 정책은 초기에는 문화의 민주화 관점에서 논의되었지만 점차 지역주민들이 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라는 인식(문화민주주의)이 높아져 왔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계량적 성과가 강조되면서 다시 과거의 공급형 정책으로 회귀한 측면이 있음
- ‘문화복지의 증진’ 이 문화정책 기본 이념으로 설정되고 문화권의 개념이 자리잡음에 따라 문화정책의 영역은 문화예술에서 국민들의 문화적 삶과 생활로 확대되었으며, 문화예술의 범주 또한 순수 문화예술에서 생활문화, 대중문화, 아마추어 문화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제3절 문화향유 정책의 기본 개요

## 1. 문화향유정책의 주요 키워드

- 문화 접근성의 증대
  - 기본권으로서의 국민 문화권의 보장
  - 누구나 제약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함
  - 문화향유의 양적 확대
- 문화해득력의 확대
  - 문화예술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수준의 보편적 상향
  - 문화해득력의 신장은 국민 감수성의 성장 및 창조력의 신장으로 연결됨
  - 문화향유의 질적 성장
- 잠재관객의 발굴
  - 문화향유의 확산을 통한 잠재적 예술애호계층의 확대
  - 예술생태계의 자생력 신장

## 2. 주요 정책 대상

- 주요 대상 : 우선적 정책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목표로 함
- 사회적 취약계층의 발생 요인(양현미)
  -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저소득층
  - 신체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 등
  - 일시적 격리로 인한 교정시설 및 소년원 수용자, 군인
  - 문화적 차이에 따른 이주민(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새터민
  - 위의 원인 등이 복합된 경우인 독거노인,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 등
-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반적 범주는 다음과 같음

〈표 2-2〉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범주/주요부처	특성	성별	연령	소득	장애	국적	지역	가족형태	고용형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이주민	-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비정규직
노동 취약계층	고용노동부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이주민	-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비정규직
문화적 취약계층	문화부	-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이주민	농산어촌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비정규직

#### □ 일반국민으로의 확대

- 사회적 취약계층이 문화향유사업의 우선적 대상이라면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일상적 문화소외에 놓인 일반국민으로 점진적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
- 공공정책에서 문화향유에 대한 지원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상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보편적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향유의 확대는 생활문화 등 인접 영역에서의 공공문화정책과 연동되어 설계되어야 함
- 문화순회사업 역시 재원이 기존의 복권기금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 사업대상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나 재원의 한계상 불특정 다수를 사업의 대상으로 하거나 취약계층이 아닌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시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

### 3. 문화향유 확산을 위한 주요 정책 사업

#### □ 문화나눔사업

- 2004년부터 문화체육부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후원으로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에서 추진
-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사랑티켓, 문화바우처, 문화나눔, 전통나눔, 지방문화관 특별프로그램 지원,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 지원, 서민 풀뿌리 문화나

눔 등으로 진행되다가 프로그램의 통합 등을 통해 현재는 '신나는 예술여행'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등으로 진행

□ 통합이용권 사업(문화누리카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 및 후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1매, 연간 6만 원)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회문화예술교육)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
-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 프로그램 :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문화파출소 등

## 제3장

### 문화향유사업의 현황 분석

#### 제1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향유사업 분석

1. 예술위원회 문화향유사업의 변천
2.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의 현황
3.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의 변화
4.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의 성과 및 과제

#### 제2절 : 국내·외 사례

1. 국내 문화향유사업의 유형 및 사례
2. 국외 문화국가 문화향유사업 사례

## 제1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향유사업 분석

### 1. 예술위원회 문화향유 사업의 변천

- 문화향유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본 장에서는 연구의 취지에 맞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화나눔사업과 세세부사업인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 문화나눔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및 참여를 제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복지사업’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제4호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을 법적 근거로 함
  - －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35%는 법정배분사업에 사용되며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는데,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은 공익사업 중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배분되는 사업을 말함
  -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2016년 복권기금 문화나눔 세부사업계획〉에 따르면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특수한 소외 여건으로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문화예술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양극화를 줄이고 창의적 힘과 문화적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2016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제외되고, 공연나눔사업(사랑티켓, 소외계층문화순회, 방방곡곡문화공감), 창작나눔사업(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과 같은 4개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복권기금 약 372억 원이 투입됨

〈표 3-1〉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 목적	주관처	비고
통합문화 이용권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외
사랑티켓	어르신(65세 이상) 및 아동/청소년(24세 이하) 등 공연·전시관람료 지원을 통한 문화접근성 제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외계층 문화순회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구 범위
방방곡곡 문화공간	문화소외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한국문화 예술회관연합회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소외지역주민들의 자율적 문화활동 형성 및 활성화 계기 마련	한국문화원연합회	

## 가. 전개 과정

□ 200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의 폐지가 결정되고 국민의 문화향유 제고를 위한 문화복지정책의 중요성과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2004년부터 문화예술 분야에 복권기금을 활용한 문화복지사업이 시작됨

- 2004년 당시 소외계층문화순회(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포함), 지방문화회관 특별프로그램지원, 공공 박물관미술관 전시프로그램 지원, 문화의집 체험프로그램, 지방문화원 중심 지역향토문화체험, 민속마을 전통축제지원,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올해의 예술작품 축제/시상, 무대예술 인재 교육, 생활친화적 복합문화공간 조성,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사업이 시작됨
- 2005년 문화나눔이 시작되었고, 문화예술 영상콘텐츠 지원, 대학로 소규모 복합공연장 조성, 다중지역 작은문화장터 사업이 시작됨
- 2006년에는 사랑티켓과 문화바우처사업(전자포인트 방식)이 시작됨
- 2006년 문화의집 체험프로그램, 올해의 예술작품 축제/시상, 대학로 소규모 복합공연장 조성, 다중지역 작은문화장터 사업이 폐지됨

- 2007년 문화의집 체험프로그램, 문화예술 영상콘텐츠 지원, 컬처팩토리 설립 운영 사업이 폐지됨
- 2006년까지 복권기금을 통한 문화부문 사업이 ‘모두를 위한 예술’ 을 지향했다면 2007년 이후에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2008년부터는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함
  - 2008년까지 문예진흥기금 지원목표에서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와 ‘예술의 생활화’ 에 포함되었던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목표가 2009년 이후 ‘생활 속의 예술활성화’ 로 변경됨
  - 2008년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생활친화적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공미술활용 생활문화환경 가꾸기,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사업이 폐지 혹은 이전됨
  - 2009년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이 시작됨
  - 2010년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 내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이 독립된 사업으로 분화됨
  - 2011년 문화이용권사업이 기존의 온라인 포인트제에서 문화카드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예산이 245억 원으로 크게 증대됨
  - 2012년 전통나눔이 폐지되고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으로 흡수됨
- 2014년 기존 8개 세세부사업으로 진행되던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이 5개 세세부사업으로 변경되고, 일부 사업이 국고사업으로 이전됨
  - 기존의 문화이용권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여행이용권과 스포츠관람이용권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흡수됨
  - 우수문화도서보급, 공공 박물관·미술관 전시프로그램 지원, 장애인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이 국고사업으로 통합이전 됨
  - 기존에 국고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이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으로 편입되어 지방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과 통합됨
- 2015년 사업은 2014년과 큰 차이는 없으나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 유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

- 2014년 :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문예회관 기획프로그램 지원,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문예회관과 국립예술단체 공동제작 지원, 문화가 있는 날 특별프로그램 지원
- 2015년 : 민간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문예회관 기획프로그램 지원,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2016년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문화나눔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소외계층문화순회,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의 세부유형이 변경됨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의 경우 기존의 유형별순회사업에서 학교순회사업이 추가되었으며, 기획순회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사업이 확대됨.
  -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의 경우 국립우수 공연프로그램 지원이 추가됨.

#### 나. 예산 변화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예산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매년 240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로 조성되었음
- 2008년에는 198억 원으로 대폭 감축되었으나 2009년 이후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 2011년에 480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 2013년까지 추진되었던 4개 사업 ‘문학나눔(우수문학도서보급)’, ‘전시나눔(공공박물관·미술관 전시프로그램지원)’, 공연나눔 중 ‘전통나눔’, 창작나눔 중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은 국고사업으로 통합(2014년)
- 2014년, 2015년에는 동일한 5개 세세부사업에 약 613억 원이 배정되었음
- 2016년에는 통합이용권을 제외한 ‘사랑티켓, 소외계층문화순회, 방방곡곡문화공감,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4개의 세세부사업에 약 372억 원이 배정됨
  -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은 2016년에 유형별순회사업의 세부유형이 변경되었으며 기획순회사업이 추진됨
  -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국고사업이었으나 2014년부터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지원과 통합되어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변경됨

〈표 3-2〉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기금규모 추이(2004-2016)

(단위 : 백만 원)

세세부 사업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문화 이용권	-	-	2,000	2,000	2,700	4,000	5,000	24,500	34,300	34,946	40,866	42,643	-	
공연 나눔	사랑 티켓	-	-	6,000	5,200	3,020	2,000	2,400	2,400	2,000	1,956	1,251	1,278	1,119
	소외 계층 문화 순회	4,000	4,750	7,500	7,500	4,630	6,200	5,800	8,000	9,300	9,530	10,000	10,000	20,000
	전통 나눔	2,500	3,000	3,000	2,500	1,440	1,500	1,500	1,300	-	-	국고사업 통합		-
	지방 문예 회관 특별 프로그램 지원	14,600	9,400	9,400	7,000	3,100	4,000	4,800	4,800	4,800	4,704	-	-	-
	방방 곡곡 문화 공간					550	2,000	2,500	3,375	3,035	2,883	7,983	8,000	15,000
	문학 나눔	우수 문학 도서 보급	-	5,220	5,220	4,000	2,310	2,300	2,000	4,000	4,000	3,930	국고사업 통합,	
전시 나눔	공공 박물관 미술관 전시로 프로그램 지원	3,600	3,340	3,000	1,737	1,100	600	600	800	800	787	국고사업 통합		-
창작 나눔	장애 인 창작 및 표현 활동 지원	-	-	-	소외계층문화순회 내의 사업으로 실시			400	1,000	1,000	1,088	국고사업 통합		-
	생활 문화 공동 체만 들기	-	-	-	-	-	1,200	1,200	1,200	1,200	1,180	1,200	1,200	1,080
합계	24,700	25,710	36,120	29,937	18,850	23,800	26,200	51,375	60,435	61,004	61,300	63,121	37,199	

### 다. 운영 체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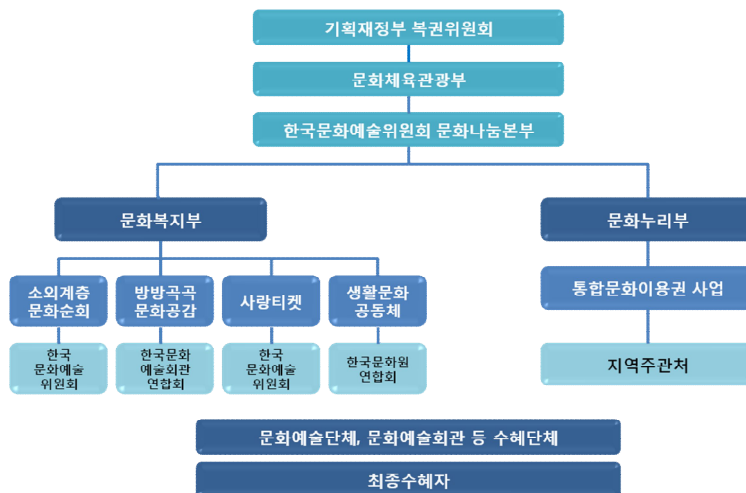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운영체제의 변화는 2006년 문화나눔추진단 운영을 기준으로 설립 이전, 운영기, 해체 이후로 나눌 수 있음

〈표 3-3〉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운영체제의 변화

구분	내용	
문화나눔 추진단 설립 이전 (2008년 이전)	문화체육관광부가 단위사업 시행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복권위원회 · 기획재정부 · 국회에서 복권기금 운용계획이 결정되면서, 복권기금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입 단위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뿐 아니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원연 합회, 전국문예회관연합회, 공공미술추진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메세나협의 회, 한국박물관협회, 한국문화의집협회 등에서 수행하였음	
문화나눔 추진단 운영시기 (2008년 ~ 2010년 5월)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에 문화나눔추진 단 설치 (문화나눔추진단이 1차 보조사업 수행자가 되는 형식임) 실제 단위사업의 추진은 2차 보조사업 수행자가 진행함 2차 보조사업 수행자(실제 사업추진 주체)는 문화나눔추진단의 하위 사무국(예를 들어 문학나눔 사무국) 또는 문화나눔추진단의 비(非)하위기관(예를 들어 전국문예 회관연합회)이 됨 이 시기는 다시 문화나눔추진단의 기능에 따라 2008년부터 2009년 4월까지의 시기 와 2009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문화나눔 추진단 해체 이후	2010년도 사업	문화나눔추진단이 해체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부에서 사 업 총괄 실제 세세부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 국도서관협회, (주)에피루스, 사랑의 책 나누기운동본부, 한국문화복 지협의회,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박물관협회,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등에서 진행함
	2011년도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에서 사업 총괄 실제 세세부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센터, 예술경영 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도서관협회, 사랑의 책 나누 기 운동본부, 전통공연진흥재단, 한국박물관협회,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에서 진행함
	2012년도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에서 사업 총괄 실제 세세부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 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박물관협회 등에서 진행
	2013년도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에서 사업 총괄 실제 세세부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책 읽는사회문화재단, 한국박물관협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에서 진행함
	2014년도 이후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에서 사업 총괄( '14년 예술위 나주 이전) / 실제 세세부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 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등에서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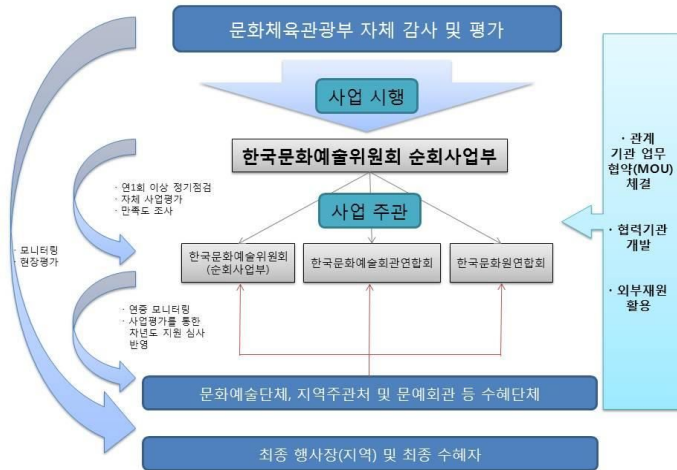
- 2014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2017년 까지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시행주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에서 담당함
  - 통합문화이용권의 주관은 문화누리부로 변경됨
  - 통합문화이용권을 제외한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주관은 문화복지부에서 담당
  - 소외계층문화순회의 주관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변경됨
  - 방방곡곡문화공감의 주관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담당함
  -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의 주관은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변경됨

[그림 3-1]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운영체계(2014년 기준)



- 2017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이 총괄운영이 강화됨
- 세세부사업별 주관단체는 및 운영체계는 2016년과 동일함
  - 주·월간 업무 보고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함
  - 사업 주관단체 및 사업 시행단체의 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함

〔그림 3-2〕 2015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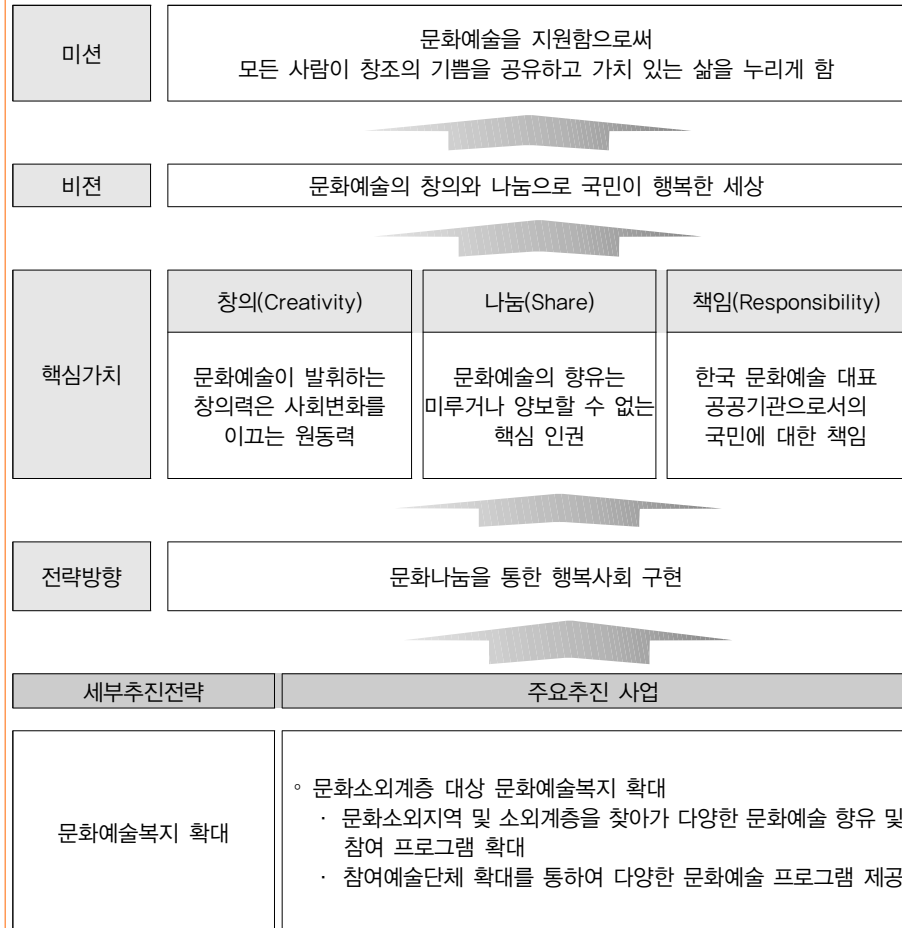


## 라.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현황

### 1) 사업의 목적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특수한 소외 여건으로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문화예술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양극화를 줄이고 창의적 힘과 문화적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함
- 2016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와 전략방향, 세부추진전략은 다음의 아래와 같음.

〈표 3-4〉 2016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목표



## 2) 사업구분 및 내용

- 2015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구체적 단위사업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5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은 크게 공연나눔, 창작나눔으로 구성됨
  - 공연나눔사업의 세부사업은 ‘소외계층문화순회, 사랑티켓, 방방곡곡문화공

- 감' 사업이며, 창작나눔사업의 세부사업은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로 구성
- 본 연구에서는 공연나눔사업의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봄

〈표 3-5〉 2015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구분 및 내용

구분	사업명	사업 목적	주관처
공연 나눔	사랑티켓	어르신(65세 이상) 및 아동/청소년(24세 이하) 등 공연·전시관람료 지원을 통한 문화접근성 제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외계층문화순회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방방곡곡문화공감	문화소외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 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창작 나눔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소외지역주민들의 자율적 문화활동 형성 및 활성화 계기 마련	한국문화원연합회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 「2016년 복권기금 문화나눔 세부사업계획」

### 3) 사업수혜대상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대상은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특수한 소외 여건으로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문화양극화를 줄이고 창의적 힘과 문화적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함

〈표 3-6〉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대상

구 분	대 상
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사회적 소외계층	장애인, 노인, 재활원, 요양원, 보육원,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소아병동 환자, 외국인 노동자 등
지리적 소외계층	읍·면·동·도서(섬)·산간벽지·공단지역 주민
특수 소외계층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새터민 등

\*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 「2016년 복권기금 문화나눔 세부사업계획」

#### 4) 사업추진 주체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추진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주관단체이며 각각의 역할 및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음

〈표 3-7〉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추진 주체

기 관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총괄 및 감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 기획, 조정 및 성과관리 월별 주관단체 예산배분 주관단체 사업추진 점검·평가 문화나눔 통합 홍보(문화나눔 브랜드 홍보) 문화나눔 외부평가 대응
사업 주관단체	문화나눔 단위사업 운영 및 관리 2차 사업시행자 관리(지역주관처 혹은 공모사업 수행자) 단위사업 홍보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2015년 복권기금 문화나눔 세부사업계획」

#### 5) 사업예산

- 2015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예산은 전해 613억 원에서 약 3.0% 증가한 631억 원임
- 이 중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은 426억 원이며, 이를 제외한 소외계층문화순회, 사랑티켓, 방방곡곡문화공감,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예산은 204억 원
- 2016년 문화나눔사업의 복권기금 예산은 약 372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41% 감소함
- 통합문화이용권이 복권기금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공연나눔사업의 예산은 약 361억원으로 전년대비 87.4%가 증가함. 사랑티켓사업은 약 11억 원(12.4%▼),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약 200억 원(100% ▲),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은 약 150억 원(87.5%▲)으로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과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의 예산이 대폭 증가함.
  - 2016년 소외계층문화 순회사업은 전체 복권기금 예산의 약 53%를 차지할 정도로 사업의 범위와 중요도가 확대되었음

## 2.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의 현황

- 2004년부터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매년 진행 중인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은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또한 선정된 예술단체들이 대상 소재지에 직접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예술단체의 역량강화 및 창작환경을 조성하게 함

### 가.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sup>2)</sup> 추진 경위

-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은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라 2004년부터 시작됨
  - 2004년 복권기금 전입 및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개시
  - 2008년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기관 협조체계 도입
  - 2011년 수용자 맞춤형 사업으로 개편
  - 2013년 정부 국정과제(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로 사업 확대 추진
  - 2014년 노인·청소년층 수요층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프로그램 도입
  - 2016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공모사업과 수요 기반형, 수요창출형 특성화 프로그램 기획사업 전면 확대 실시
    - ‘소외계층’ 용어가 주는 낙인효과(stigm effect) 방지를 위해 -2가지 사업명을 병행하고- 대외용으로 사용 중이던 사업명 ‘신나는 예술여행’을 정식명칭으로 일괄 통일하여 홍보 진행
- 그러나 본 사업이 2018년부터 문예진흥기금으로 편입됨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문예진흥기금의 본래 목적에 따라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의 성격과 사업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함
-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의 단위사업 구분이

2) 본 사업의 추진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16조(기금의 설치),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에 따르고 있다.

‘생활 속 예술활성화’ (2017년)에서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2018년) 사업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2018년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내용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음

#### 나. 사업내용 및 대상

-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학교, 임대주택단지, 교정시설, 군부대,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순수예술 관람경험이 없는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
- 사업대상은 상위사업인 복권기금 문화순회사업의 대상과 같으며, 문화소외계층에 대해 적극적인 규정을 내리고 있음
  - － 경제적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 － 사회적 소외계층 : 장애인, 노인, 재활원·요양원·보육원·쉼터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소아병동 환자, 외국인 노동자 등
  - － 지리적 소외계층 : 읍·면·동·도서(섬)·산간벽지, 공단 지역주민
  - － 특수 소외계층 :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 － 문화 소외계층 : 연간 순수예술 관람경험이 없거나 적은 문화소외계층
- 사업내용은 크게 ‘대상자맞춤형프로그램’ 과 ‘대상자발굴형프로그램’ 으로 나뉘어 진행 중임.(2017년 기준)
  - － **대상자맞춤형프로그램**은 사전 선정 된 순회대상처(수혜시설)와 예술단체의 상호 매칭을 통해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예술일반 분야의 공연예술 프로그램임.(문화, 시각예술 장르의 경우 공연순회가 가능할 경우 포함됨)
  - － **대상자발굴형프로그램**은 순회대상처를 포함하여 해당 유형의 수혜대상을 단체가 직접 발굴하고,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 개발하여, 순회활동을 추진함. 때문에 참여 단체는 공연프로그램의 연행자인 동시에 대상처의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매개자 역할도 수행해야 함.

□ 2017년 기준 대상별 사업유형과 그에 따른 협력기관은 다음과 같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여성가족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철도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서울특별시, SH공사, 법무부, 국방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표 3-8〉 2017년 대상별 사업유형

구분	사업유형	사업대상 및 내용	협력기관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아동시설 순회사업	◦ 아동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 ◦ 초등학교, 병원학교 등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시설 순회사업	◦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 사회복지 관련 시설 ◦ 중·고등학교 등	
	장애인시설 순회사업	◦ 장애인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 특수학교 등	
	노인시설 순회사업	◦ 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 ◦ 노인요양병원 등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일반시설 순회사업	◦ 임대아파트 ◦ 산업시설 ◦ 다중집합시설 및 교통요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SH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특수계층시설 순회사업	◦ 새터민 관련 시설 ◦ 교정시설, 군부대, 의료시설 등	법무부, 국방부, 통일부
	대상자맞춤형 신규 프로그램	◦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일반, 특수계층 등 대상자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	-
대상자 발굴 프로그램	이웃사촌 순회	◦ (필수) 농산어촌 포함한 문화소외지역 ◦ (선택) 찾아가는(모셔오는)서비스 활용 주민참여 유도 프로그램 ◦ (선택) 지역 공간 활용한 공연, 체험, 전시 등 프로그램 운영	해당 지자체
	대규모 공연순회	◦ 기초지자체 공동주관 ◦ 해당 지역 공연장에서 대·중규모 공연	기초지자체
	도서지역순회	◦ 서해5도 및 도서지역	해당 지자체
	성과확산순회	◦ 연간 성과확산 프로그램 ◦ 대국민 성과확산 행사 운영	-
	문학 순회	◦ 일반예술단체 등 ◦ 지역문화공간(학교, 도서관, 창작공간, 서점, 공연장 등)	해당 지자체

회	지역 문학관	전국 지역 문학관	해당 문학관
---	-----------	-----------	--------

□ 2016년 소외계층 순회사업을 통해 약 3,300여회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순회대상처에 제공되었고, 약 75만 명의 문화예술프로그램 수혜자를 양산함.

**다. 사업의 예산**

□ 2017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예산은 약 211억 원으로 전액 복권기금으로 이루어짐. (2018년부터는 전액 문예진흥기금으로 편입)

□ 2016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의 예산<sup>3)</sup>은 유형별 순회사업 100억 원, 기획순회사업 93.5억 원, 전체 사업운영비 6.5억 원으로 총 200억 원이었음.

- 사업유형별로는 유형별 순회사업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학교 순회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획순회사업의 경우는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사각지대 발굴프로그램 순이었음.
- 유형별 순회사업 지원규모는 1회당 500만원 내외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데, 이 속에는 출연진 및 진행스태프 사례비, 여비(이동경비, 숙박비), 임차료(장비, 소품 대여비),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3-9〉 2016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예산 및 순회대상처 공연횟수**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유형	예산	계	순회대상처 (공연횟수)
유형별 순회사업	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4,100	10,000	830
	농산어촌 순회사업	1,500		350
	학교 순회사업	2,000		450
	임대주택 순회사업	1,300		250
	교정시설 순회사업	400		100
	군부대 순회사업	700		150
기획 순회사업	대규모 우수 콘텐츠 확산 프로그램	공연 순회	1,000	25
		문학 순회	500	50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연구」, 2016.

	문화 사각지대 발굴프로그램	도서산간 순회	500	2,500	50
		혁신도시 순회	720		12
		산업단지 순회	450		60
		다중집합 순회	600		160
		지역문화공간	230		60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문화공감 순회 (서해5도, 새터민)	650	2,950	60
		의료시설 순회	1,000		120
		특수학교 순회	900		120
		협력기관 문화연계	400		50
	순회사업 활성화 프로그램	이웃사촌 문화연계	1,500	2,400	300
성과확산대회		900	30		
가. 사업비 소계				19,350	
나. 운영비(심의, 모니터링, 홍보, 평가 등)				650	
총 계				20,000	

## 라. 사업의 추진체계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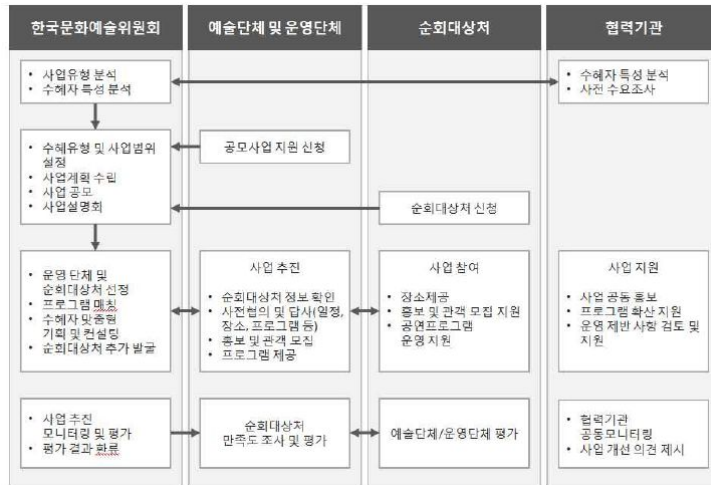
### □ 2014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으로 추진

- 2013년까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본 사업을 맡아서 진행했으나, 2014년부터 유관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증대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으로 진행

### □ 추진체계 및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사업의 총괄 실행 및 관리, 평가와 홍보를 담당하고, 예술(운영)단체는 사업의 실행을, 협력기관은 사전 수요조사와 수혜대상 선정 등의 역할을 담당

(그림 3-3) 사업의 추진체계도



□ 2017년 기준 대상자 맞춤형프로그램과 대상자 발굴형프로그램은 사업추진절차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임.

- 대상자 맞춤형프로그램 : 순회대상처를 먼저 선정하고, 수혜시설과 예술단체의 프로그램을 매칭하는 방식

(그림 3-4) 대상자 맞춤형프로그램 추진절차



- 대상자 발굴형프로그램 : 순회대상처를 포함하여 해당 유형의 수혜대상을 예술단체가 직접 발굴하고,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 개발하고 순회활동으로 추진

(그림 3-5) 대상자 발굴형프로그램 추진절차



## 마. 사업운영

- 2016년 사업에서 지원 대상 예술단체 및 주관처는 총 228개였음
- 2016년 사업 기간 동안 총 3,229회의 순회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수혜자 수는 총 754,223명으로, 평균 1회당 약 230명의 관객을 창출함
  - 수치상으로만 보았을 때, 소외지역 문화순회사업의 전체 수혜자의 약 47%가 유형별 순회사업을 통해서였고, 그 중에서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에 순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다중집합 시설과 혁신도시 순회를 포함한 문화사 각지대 발굴프로그램 수혜자 수는 도합 351,180명으로 전체 사업의 15%를 차지해 적지 않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본 사업을 통한 계층별 수혜자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노인(31.5%), 아동·청소년(26.7%), 소외지역주민(25.6%)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표 3-10〉 유형별 선정단체·수혜자 수

구분	사업유형	선정 단체 (개)	순회 횟수 (회)	관객수(명)
유형별 순회사업	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63	600	55,071
	농산어촌 순회사업	36	300	38,096
	학교 순회사업	71	911	170,782
	임대주택 순회사업	12	158	18,065
	교정시설 순회사업	8	70	14,010
	군부대 순회사업	15	164	55,156

기획 순회사업	대규모 우수 콘텐츠 확산 프로그램	공연 순회	1	168	28,921
		문학 순회	1		
	문화 사각지대 발굴프로그램	도서산간 순회	1	78	4,732
		혁신도시 순회	2	22	28,370
		산업단지 순회	1	60	18,610
		다중집합 순회	2	119	55,600
		지역문화공간	3	95	13,178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문화공감 순회 (서해5도, 새터민)	1	56	5,781
		의료시설 순회	2	126	26,279
		특수학교 순회	3	120	8,096
		협력기관 문화연계	1	38	12,262
	순회사업 활성화 프로그램	이웃사촌 문화연계	3	171	190,522
성과확산대회		1	43	10,692	
총 계			227	3,299	754,223

〈표 3-11〉 계층별 수혜자 수

구 분	유형별 순회사업(명)	기획 순회사업(명)	합 계(명)	비 율(%)
아 동	93,897	19,571	113,468	15.0
청소년	85,130	3,191	88,321	11.7
장애인	12,063	26,279	38,342	5.1
노 인	61,663	176,246	237,909	31.5
군 인	55,156	2,950	58,106	7.7
새터민	—	2,581	2,581	0.3
재소자	14,010	—	14,010	1.9
소외지역민	28,701	164,399	193,100	25.6
기타(환자 등)	560	7,826	8,386	1.1
계	351,180	403,043	754,223	100.0

- 2016년 기준 유형별 순회사업과 기획순회사업의 순회대상처 공연횟수를 살펴보았을 때, 예술단체는 평균 10회의 공연을 진행함.
  - 유형별 순회사업과 기획순회사업의 순회비율(공연횟수 대비)은 7 : 3으로 구성

#### 바. 사업 평가체계

- 매년 평가기관을 배치하여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서면평가, 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여 상반기 좋은 성과를 낸 예술단체에게는 하반기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현장평가(50점), 서면평가(20점), 만족도(30점) 합산한 평가지표 기준으로 예술단체별 종합평가 진행
-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의 평가체계는 2004년 사업 시작 후 거의 매년 바뀜
  - 사업초기에는 표본조사로만 평가했으나, 사업유형에 따른 평가에 차이가 있어, 예술단체의 경우 전수조사로 전환
  - 2015년 평가체계 대비 2016년 현장평가 비율이 감소(55점→50점)하고 서면평가 비율이 상승함(15점→20점)
  - 순회대상처만 실시하던 만족도 조사를 수혜자(관객)까지 확대 실시함
  - 예술단체별로 연1회 실시하던 현장평가를 연2회로 늘리고 상반기 평가 결과에 따라 하반기 순회대상처 추가 배정 등 인센티브 제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모니터링단(전국 예술강사) 및 내부 인적자원(전문위원, aPD연구생)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2016년부터 시작함

〈표 3-12〉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모니터링 체계

대상	모니터링/ 평가 내용	주기	비고	결과활용
예술단체	· 평가 (현장/서면)	연중	· 공모사업 : 현장평가 연2회 · 기획사업 : 현장평가 연1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활용 온라인 설문조사	상반기 유형별 순회사업 예술단체 평가결과를
순회	· 만족도 조사	연중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대상처			활용 온라인 설문조사	하반기 순회대상처 추가배정 반영
관객	· 만족도 조사	연중	· 관객 만족도 조사 (설문지) 시행	

▲ 모니터링 및 평가 내용 결과 내·외부 공유 ▼

예술단체, 수요처, 참여자, 협력기관 심층 인터뷰	예술단체, 순회대상처 대상 평가설명자료 발송	현장평가단 간담회
-----------------------------------	-----------------------------	--------------

- 현장평가는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심의위원 및 현장평가위원이 연중 2회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전수 평가를 실시
  - － 실제 사업의 운영 및 진행(홍보, 참여관객수 포함)에 대한 평가지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작품 자체의 완성도 평가비율을 낮음
- 서면평가는 프로그램 종료 후, 예술단체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담당자가 서면평가 진행
  - － 서면평가는 사업 집행과 목표 달성의 충실도를 중심으로 평가지표가 구성
- 예술단체 프로그램 종료 후, 순회대상처 사업담당자와 수혜자(관객) 대상 평가를 실시함
  - － 순회대상처 담당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고, 수혜자(관객)는 설문지에 응답하게 됨

〈표 3-13〉 2016년 현장평가 지표 및 배점

평가 영역		평가 지표	배점
집행	계획 일치성	사업계획과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일치성	5점
	운영 및 진행	참여자(관객)대상 서비스 우수성	10점
		프로그램내용과 참여자(관객) 특성 부합성	10점
	작품 완성도	프로그램 수준의 우수성	15점
	사업 추진 충실도	홍보물 준비 적절성	5점
사업 성과 및 환류		참여자(관객) 수	5점

〈표 3-14〉 2016년 서면평가 지표 및 배점

평가 영역		평가 지표	배점
집행	예산 집행	예산집행 적절성	5점
	운영 및 진행	순회대상처와 프로그램 진행 협의 정도	5점
	사업추진 충실도	각종 매체노출 실적	5점
사업성과 및 환류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보고서 제출 일정 준수	5점

〈표 3-15〉 2016년 순회대상처 만족도 조사 지표 및 배점

평가 영역		평가지표	배점
사업성과 및 환류	성과목표 달성도	단체 평가	10점
		프로그램의 적합성	5점
		프로그램의 내용	5점
		사업전반에 대한 만족도	5점
		추천의향	5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행한 『2016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성과평가 결과보

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6년(3년 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의 단체별 만족도를 참여연차 및 당해 연도 공연횟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적어도 **예술단체의 능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에 4회 이상의 공연기회가 제공되고,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음**

〈표 3-16〉 참여연차 및 공연횟수에 따른 예술단체 평가점수 변화

구 분	참여연차	공연횟수
현장평가	3년차부터 증가	10회 이상 필요
서면평가	매해 증가	4회 이상 필요
만족도 조사	3년차부터 증가	4회 이상 필요
종합평가	매해 증가	4회 이상 필요

#### 사. 홍보 방식

-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의 경우 ‘소외계층’이라는 용어가 주는 위화감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대외적으로 ‘신나는 예술여행’이라는 사업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음
- 사업안내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소개, 순회대상처 담당자 프로그램 신청 및 연간일정 등을 공유하고자 사업 누리집([www.lotteryarts.or.kr](http://www.lotteryarts.or.kr)) 운영 중
  - － 기존 분리되어 있던 복권기금 문화나눔 누리집과 신나는 예술여행 누리집을 통합하여 예산 절감 및 운영 효율화
  - － 페이스북([www.facebook.com/artstour2014](http://www.facebook.com/artstour2014))과 같은 SNS를 활용한 일정 안내, 공연현장 스케치, 관람 후기 소개, 이벤트 진행 및 홍보 영상 게시
  - －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 사업당사자인 순회대상처 및 예술단체 위주 홍보 진행으로, ‘신나는 예술여행’의 대국민 인지도는 높지 않음 편임

### 3.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의 변화

#### □ 예산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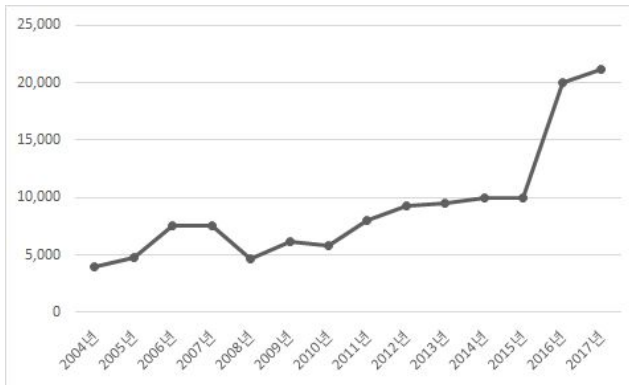
- 복권기금 출범 당시부터 40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했던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증가폭에 따라 연도별 문화예술단체 선정 수가 많아지고 공연 횟수 및 수혜지역과 수혜자 수도 꾸준히 증가해 왔음

〈표 3-17〉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예산추이

(단위 : 억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40	47	75	75	46	62	58	80	93	95	100	100	200	211

〔그림 3-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예산추이



#### □ 사업유형의 변화

- 2013년 공모사업(▲ 사회복지시설 ▲ 농산어촌 ▲ 임대주택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교정시설 ▲ 군부대)과 비공모 사업(새터민,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소외계층 청소년, 재래시장 등)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200여개 단체가 2,000여 순회대상처 방문
- 2014년에는 정기공모대상사업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어지고, 자

체추진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중소기업근로자 및 산업단지 등 정기공모 5개유형을 제외한 특수지역을 순회하는 기타시설 순회사업과 공모 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기 힘든 소외 계층(쪽방촌, 섬마을 등 격오지 소외지역 주민 포함) 기획사업이 새롭게 신설됨

-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아르코순회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공모사업 외 기획사업을 추진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저명한 예술가를 통한 소외지역 예술체험 기회 확대를 위함
- 2015년에는 기타시설 순회사업이 발굴형 순회사업으로 명칭 변경
- 2016년에는 기존 공모사업 ‘유형별 순회’ 프로그램에서 학교 순회사업이 신설되었고, 발굴형 순회사업이 대규모 공연순회·도서산간 순회·혁신도시 순회 등 11개의 세분화된 소외지역을 순회하는 ‘기획순회’ 프로그램으로 확장됨
- 2017년에는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순회대상처를 중심으로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순회대상처를 찾아내는 ‘대상자 발굴형 프로그램’으로 변경
- 점차 문화소외 규정이 적극적으로 세부화되었고, 순회사업에서 기획성을 강화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

#### □ 예술단체 순회횟수 변화

- 연도별 평균 순회횟수는 9.0회(2014년)→9.2회(2015년)→10.8회(2016년)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임대주택순회의 증가(9.5회→11.8회→13.3회)가 두드러짐. 임대주택순회는 매년 가장 많은 순회횟수를 기록함
- 학교순회의 경우 2016년부터 시작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평균 12.9회로 임대주택순회에 이어 많았으며 농산어촌순회가 8.7회로 순회횟수가 가장 적음
- 2016년에는 예술단체가 205개, 순회횟수 2,203회로 전년대비 24.5%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예술단체 226개, 순회횟수 3,299회로 증가함

#### □ 전체 사업 평가내용의 변화

- 복권기금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평가연구는 2006년부터 시작됨
  - 2006년부터 2008년 사이는 사업별 만족도 조사 중심의 평가가 진행되었고, 2008년부터 분석연구가 시작됨. 2009년부터 현재까지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해를 거듭할수록 평가지표별 등급 산출, 세세부사업별 성과 측정 등 사업평가 분석의 체계를 만들어 왔으나, 궁극적인 ‘사업의 의미와 실효성(효과)’ 측정에 대한 한계를 과제로 가지고 왔음
  -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도 상위 범주인 복권기금 문화예술사업의 평가체계 내에서 평가 및 분석되어 왔음
- 이를 위해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은 ▲신나는 예술여행 현장 및 서면평가 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복권기금 평가 제출 보고서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연구 등 매년 여러 층위에서의 평가작업을 진행해 왔음.
- 몇 해 동안 다각도로 진행된 평가 내용을 통해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의 위치와 진행방향을 살펴 볼 수 있음

〈표 3-18〉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평가 내용의 흐름

연도	평가 내용	비고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수혜금액이 약 1만8천원으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고, 지방비와 연동하거나 외부자원 개발 필요</li> <li>- 결과지표 개발의 고도화 필요</li> <li><b>소외계층을 범주화하고, 소외계층의 문화적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분석하는게 바람직하지만, 한 해 단위 조사의 한계로 분석하기 어려움</b></li> <li>-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을 거두어야 할 시점 도래</li> <li>- 지역 단위와 사업의 전달 및 협력체계 구축 필요</li> <li>- 인력의 전문성 및 안정성 필요</li> </ul>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연구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 성격의 사업들과 차별화 · 효율화 도모 : 유사 성격의 사업들과 차별성 두기 위해 사업의 통합 및 연계가능성 검토 후 사업운영의 효율화 도모할 것 (예_문화이용권 사업)</li> <li>: 종합 홍보계획 수립하여 홍보 효율성 강화</li> <li>- 공연의 질 향상 및 수혜자 확대 : 협력기관(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등)에서의 예산</li> </ul>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복권기금 평가 제출 보고서

	<p>매칭을 통해 공연의 질을 높이고 수혜자 규모 확대 필요 :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과의 시너지 강화</p> <p>- 종합분석에 기반한 개선범위 설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수요자 만족도 제고</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자(순회대상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매칭</li> <li>✓ 사업운영단계 효율화</li> </ul> </div> </div> <hr/>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업 질적 수준 제고</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상향 평준화 : 예술단체 상위·하위그룹 간극(Gap) 좁히기</li> <li>✓ 문화향유 범주 확대 : 소수 장르 지원 강화</li> <li>✓ 순회횟수 형평성 확보 : 평균 순회횟수 증대</li> </ul> </div> </div> <hr/>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전반적 평가체계 재점검</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평가 모델이 적합한가?</li> <li>✓ 평가영역 및 평가 지표는 타당한가?</li> <li>✓ 평가 활용 및 환류 체계는 적절한가?</li> </ul> </div> </div> </div> <p>-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제언 : 사업 정체성 및 차별성 확보를 통한 지속성 담보 (다양한 장르 및 단체 육성/ 일회성·일방향식 접촉을 넘어 상호 작용을 통한 라포 형성으로 사업 질적 제고)</p>	<p>신나는 예술여행 현장 및 서면평가 보고서</p>
2015		
2016	<p>- 단체와 순회대상처 상호부합되는 매칭 필요 (수혜자 중심 맞춤형 매칭 필요)</p> <p>- 단체와 순회대상처 상호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만족도 향상</p> <p>- 사업대상 유형에 맞는 홍보물 필요</p> <p>-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발전을 위한 단체의 발굴과 성장 필요 : 신규단체 기준 최소 3년의 지속적 참여가 요구(서면·종합평가 점수가 참여연차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현장평가·만족도 조사는 3년차부터 증가)</p> <p>- 무용, 문학, 시각예술 등 대중적이지 못한 장르의 지원 강화 필요 : 낯선 장르 선호도 하락하나, 소수 장르에 대한 재관람율은 월등히 높음 (다양하고 균형잡힌 예술관람 기회 제공)</p> <p>- 평가체계 및 지표가 유형별 순회사업에 맞춰져 있어, 기획순회사업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기획순회사업의 별도 평가체계 및 지표 필요)</p>	<p>한국문화예 술위원회 복권기금 평가 제출 보고서</p>

- 몇 년에 걸친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을 평가 분석보고서를 통해 반복해서 강조되는 키워드는 ▲예산 ▲만족도 ▲사업체계 고도화 ▲차별화 ▲상호 커뮤니케이션 ▲질적 성숙 ▲평가체계 등으로 나타남

## 4.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의 성과 및 과제

### □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양적 성장

-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은 예산과 수혜범위, 사업의 만족도 측면에서 꾸준히 성장해 옴
- 사업 초기 해결과제였던 소외계층 범주도 소외의 원인에 대한 정의를 통해 세분화되어, 시행단계에서의 다층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수혜대상은 점차 확대되었음
- 2013년 약 54만 명에 이르던 수혜자는 3년간 40% 넘게 확대돼 2016년에는 약 75만 명을 넘어서는 수치를 보여줌. 수혜자 만족도 측면에서도 평가지표 점수체계가 변동된 2013년~2014년을 제외하고는 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표 3-19〉 사업 수혜자 수 및 만족도 추이(2013~2016)<sup>4)</sup>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혜자 수(명)	535,065	588,994	648,211	754,223
만족도(점)	88.3	84.1	84.7	86.6

※ 문체부 고객만족도조사 표준안 적용에 따른 척도 변경 '13년 5점 척도 → '14년 7점 척도

- 소외계층 사업 대상 및 수혜범위의 양적인 확대는 문화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며,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서비스는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잡게 됨
  - 양적인 확대를 넘어 기획순회사업의 도입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접근을 시도하여 성과를 얻고 있음
  -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했으며, 공연·전시에 대한 이후 관람 의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특히 이러한 변화는 유형별 순회사업보다 기획순회사업에서 큰 차이로 두드러짐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2016년 복권기금사업평가 보고서」 재구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4년 이후 3년간 사업을 주관하며 공연단체·순회대상처·협력기관 네트워크 풀을 확보하고, 순회사업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해 왔음
- 문화소외의 해결을 위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은 질적으로의 변화와 연속성(지속성)에 대한 과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문화의 소외를 극복하는 문화향유 사업은 정책사업의 다각화로 여러 분야에 서 전개되고 있고, 이는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꾸준히 제기되었던 질적 전환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함

#### □ 중장기 비전 수립을 통한 정체성 발굴 및 강화 필요

-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은 복권기금의 문화나눔사업의 과반 비중을 차지했을 정도로 문화소외를 극복하는 대표적인 정책사업임. 그러나 매해 사업유형이 조금씩 바뀌어 수혜단체(지역) 및 예술단체의 혼란을 가져온 것도 사실임
-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본 사업의 중장기 청사진과 전략이 부재한 것에서 비롯된 문제임. 문화소외는 단기간/일회성으로 해소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이는 곧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의 정책철학을 수립하는 문제와 직결되며,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는 유사사업 속에서 문화소외 극복을 위한 통합적 비전과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단기적으로는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이 양적으로 확산되는데 중심을 차지했던 ‘유형별 프로그램’은 안정적으로 강화하고,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대변되는 순회사업 중 일부는 장기적/지속성 관점에서 문화소외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이 필요함
- 기존 사업 평가단계에서 계속 제기되었던 홍보의 취약성 문제도 결국은 사업의 정체성에서 비롯됨. 불안정한 사업 정체성은 사업 브랜드(신나는 예술여행) 확립 및 홍보계획이 필요할 때, 정확한 타겟과 전략을 수립할 수 없게 함. 이는 곧 브랜드 가치를 약화시킴. 홍보 수단이라는 방법적 접근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업의 철학과 정체성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

#### □ 재원의 불안정함으로 인한 단년제 사업 구조 극복

-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규정에 의해 기금의 35% 법정배분 사업은 배분기관 및 비율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65%의 공익사업은 배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매년 신청 및 심사를 통하므로 재원 확보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낮아서 지속성 측면에서의 불안감을 조성함
- 2018년 이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이 문예진흥기금으로 편입되더라도 불안정한 재원편성은 같은 측면에서 단년제 사업 구조를 벗어나기 힘들어 보임
- 다년간 평가과정에서도 지적된 대로, 프로그램의 질적 안정과 수혜자의 만족도는 3년 이상 연속사업에 참여한 예술단체일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남
- 현재의 재원상황과 단년제 사업구조 속에서는 문화소외를 극복하는 대국민 향유사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움
- 단년제 사업구조는 사업의 안정화를 넘어 사업의 질적 전환 및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극복 과제임. 그러나 현재의 예산구조를 감안했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새로운 재원조성의 가능성을 발굴해야 함

#### □ 공급자 위주의 사업추진체계 극복을 통한 ‘문화주체’ 형성

- 공급자 위주의 사업체계는 사업 구조 내에서 향유와 창작을 이분화시키고, 관객과 수혜처, 협력기관 등을 수동적 위치에 서게 함
- 과거 ‘문화향수’ 였던 정책용어가 ‘문화향유’의 적극적 단어로 전환된 배경을 감안한다면, 문화소의 극복방안 중 하나는 사업 과정에서의 문화주체 형성에 있다 할 수 있음
- 대상자(지)의 특성을 파악하기 힘든 현재의 사업체계는 순회대상처를 발굴하는데 한계를 갖게 하고, 참가 대상처(자)의 만족도를 하락시킴. 양적으로 확장되고 다각화된 사업 내에서 현재의 공급식 사업구조는 행정력에 하중을 갖게 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초래함(실제 공급형프로그램보다 맞춤형 프로그램의 참가자 만족도가 월등히 높다는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됨)

- 현재의 사업구조는 우수한 공연문화를 소외계층과 나눔으로 인해 문화의 소외를 극복하는 형태임. 그러나 문화소외의 극복방식에는 외부에서의 유입과 더불어 내부에서 발견(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대상처에 맞춤형 문화를 발견하고 이를 대상처 수혜자들과 공감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문화적 자긍심은 소외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업 대상의 패러다임을 확장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 시범적으로 전개되어야 함

#### □ 실적 위주의 양적평가시스템 지양과 질적 평가방식의 장기적 개발

- 현행 평가지표도 매년 세부내용이 바뀌어 왔고, 주요 평가지표는 여전히 정량 평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지표 기준 또한 모호한 상황. 순회대상처의 성격에 따라 공연 진행상황이 차이가 클 수도 있고, 유형(군부대순회, 교정시설 순회, 학교, 의료시설 등)에 따라 편차 발생
-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의 양적 성장에 따른 지표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세분화 되어 왔음.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한 참가자들의 변화( ‘소외계층의 문화적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는 지속적/연속적으로 측정되어야 할 부분임
- 질적 평가지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년간 계속 제기되어 왔음에도 적절한 대안이 도출되지 못한 상황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기 위한 측면에서도 질적 평가지표 개발은 사업 체계를 안정화 시키는 주요한 의제임
-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므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

## 제2절 국내·외 사례

## 1. 국내 문화향유사업의 유형 및 사례

- 문화소외계층을 주요대상으로 삼거나 대상에 포함시키는 국내의 문화향유사업은 프로그램과 대상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크게 매칭형과 발굴형으로 나눌 수 있음
  - － 매칭형 프로그램은 특정장르와 대상자를 서로의 필요나 상황에 맞추어 매칭하거나 모집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현재 시행되는 매칭형 문화프로그램은 다시 순회형과 캠프형으로 분류 가능함
  - － 순회형은 주로 단일 장르의 일회성 공연 프로그램이며 캠프형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만큼 복합 장르로 구성됨. 즉 순회형은 주로 예술장르나 공연을 중심으로 대상을 찾아가는 형태인 반면 캠프형은 특정 참가자들을 겨냥한 캠프 주제에 따라 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발굴형은 지역의 잠재된 공간이나 대상자를 지속 가능한 문화아이템이나 문화주체로 발굴하는 형태이며 발굴 대상에 따라 지역발굴형과 대상발굴형으로 나눌 수 있음
  - － 지역발굴형이 숨겨진 문화적 공간을 개발하여 해당 지역민의 문화적 접근성을 확장시키는 사례라면, 대상발굴형은 지역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사회적으로 특수한 환경에 처해져서 문화적 삶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대상을 문화주체로 삼아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하도록 독려하는 사례임
-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문화향유사업의 흐름과 현황을 파악하고 순회사업의 개선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함

## 가.순회형

1) 찾아가는 사랑의 금호아트홀<sup>5)</sup>

## □ 사업개요

---

5)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 소도시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회.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교육과학기술부와 MOU를 통해 2012년 전라남도 완도에서 3차례 음악회를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제주, 강원 등 전국 각지를 찾아 작은 음악회를 시행하고 있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 출처 : 지디넷코리아

## □ 사업목표

- 클래식 음악을 해설과 함께 들려주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어린이,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예술적 소양계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함

## □ 프로그램 예시

- 제목 : 23번째 찾아가는 사랑의 금호아트홀
- 대상 : 경북 성주군 수륜중학교 전교생 21명과 선생님들
- 연주팀 : 색소폰 콰르텟 에스윅(S.With)
- 프로그램 : 바하 G선상의 아리아, 모차르트 작은별 변주곡, 겨울왕국 OST 등을 악기와 음악에 대한 해설과 함께 연주

## 2) 한화 찾아가는 예술교실<sup>6)</sup>

## □ 사업개요

6) 한화 예술더하기 홈페이지 참조

- 한화그룹과 한국메세나협회가 공동 기획하여 2009년부터 9년째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인 ‘한화예술더하기’를 공동 기획하여 운영 중임
- 예술강사 뿐만 아니라 한화 임직원 봉사자들이 함께 협력해 예술교육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
-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사회통합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전통문화교육’을 컨셉으로 예술교육 및 체험활동을 지원함
  - 신청대상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단체, 전국 초/중/고교,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복지기관(복지관, 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전국 정보산업학교(소년원), 여가부 유관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 □ 사업목표

- 정기교육과 더불어 일반 대중에게도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전국 방방곡곡을 예술단체들이 순회함



## □ 프로그램 예시

〈표 3-20〉 한화 찾아가는 예술교실 프로그램 내용

NO	유형	프로그램명	예술단체명	장소
1	관람형 (9개)	전래동화극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다가'	이야기꾼의 책공연	전국 순회공연(찾아가는형태)
2		느낌좋은 타악콘서트 'Feel 굿'	전통타악연구소	전국 순회공연(찾아가는형태)
3		국악실내악+비보이 퍼포먼스 '樂 & 민 yo!'	문화예술감성단체 여민	서울/경기순회공연 (찾아가는형태)
4		국악과 힙합의 융복합 퓨전콘서트 '무브먼트 코리아 시즌2'	광개토사물놀이	전국 순회공연(찾아가는형태) 초청공연(서울전통연희공간)
5		체험이 있는 전통연희 퍼포먼스 '도는놈 뛰는놈 나는놈'	연희집단 The 광대	전국 순회공연(찾아가는형태)
6		전래동화연극 '놀부전'	오렌지컴퍼니	전국 순회공연(찾아가는형태) 초청공연(서울경복궁아트홀)
7		마당놀이극 해님달님	월드뮤직앙상블 다울	전국 순회공연(찾아가는형태) 초청공연 (대전공연문화놀이터휴지공 연장)
8		전통연희체험 '꼭두쇠야 놀자' (전통연희 체험, 광대놀음)	전통연희단 꼭두쇠	초청공연(경기시흥옥구도자연공 원옥구놀이마당)
9		창작마당극 '착한사람 김삼봉'	예술공장 두레	전국 순회공연(찾아가는형태) 초청공연(충북청주예술공장 두레)
10	관람형 + 체험형 (6개)	세계민속 관악기 소개 및 체험 + 대나무 악기 공연 및 체험	서리서리공방과 장애인사물놀이따띠	서울/경기/대전 순회공연 (찾아가는형태)
11		탈과 함께 떠나는 신명여행(중요무형문화재 제2호양주별산대놀이 공연)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서울/경기순회공연 (찾아가는형태)

12		전래동화 국악 뮤지컬 '호랑이 오빠 얼쑤'	극단 신명나게	서울/경기순회공연 (찾아가는형태) 초청공연 (서울대학교이랑씨어터)
13		팔도광대 선발전(전통연희)	노름마치예술단	전국 순회공연(찾아가는형태)
14		봉산탈춤이랑 놀자!	중요무형문화재제17호 봉산탈춤보존회	초청공연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관 민속극장'풍류')
15		판소리, Fun Story!! (해설이 있는 판소리)	국악뮤지컬집단 타루	서울 순회공연(찾아가는형태)
16	체험형 (10개)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화통한 내 그릇'	예술창작연구소 삶은화통	전국 순회공연(찾아가는형태)
17		단청무늬 시계만들기	부산교육대학교 예술교육연구소	전국 순회공연(찾아가는형태)
18		전통서예체험 '붓으로 숲을 이루다'	문밖세상	서울/경기/대전/전북 순회공연 (찾아가는형태)
19		나만의 캘리그래피 고급텀블러 패키지 체험	주식회사 디근	서울/경기 순회공연(찾아가는형태)
20		3D프린팅 펜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통 탈 만들기	한국북아트 토탈공예협회	서울/경기 순회공연(찾아가는형태)
21		머그컵과 점토를 이용한 토우인형 / 점토를 활용한 화분만들기	금강아트센터	전국 순회공연(찾아가는형태) 초청공연 (충남공주금강아트센터)
22		이야기가 있는 일곱 빛깔 '칠보 팔찌 시계 만들기'	문화예술교육 아츠편	초청공연 (광주남구문화예술교육아츠 편)
23		행복을 부르는 까치와 호랑이 민화 그리기	한국전통민화협회	대전/충청 순회공연(찾아가는형태)
24		백제문화놀이체험, 백제 전통문양 가족티셔츠 만들기	충남교육연구소	*경기/대전/충청/호남 순회공연 (찾아가는형태) *초청공연(충남공주충남교육 연구소)
25		전통 오방색 한지등 만들기	한지나라공예문화협회	초청공연(대구동구대구시니어체 험관)

### 3) 움직이는 예술정거장<sup>7)</sup>

#### □ 사업개요

- 전국의 농산어촌을 비롯한 문화소외지역의 아동 및 노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 신청 대상 : 소규모 학교 · 분교 ·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 경로당 · 마을 회관

#### □ 사업목표

- 다양한 장르의 예술체험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과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도록 함

#### □ 프로그램 예시

- 지역 특성에 따라 예술버스, 예술트럭, 병원선 등 세 가지 범주의 사업으로 진행됨
  -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간과 즐거움이 숨겨진 예술버스 (전라, 경기, 강원권)
  - 참가자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멋진 무대를 꾸미는 예술트럭 (경상, 충청, 경북권)
  - 감성의 물결이 함께 울렁이는 바다 위 병원선(전남도서, 경남도서).

#### ① 예술버스 : 좀비 버스터즈 미디어 밴드

- 전라도 지역 / 아동대상 프로그램 / 버스
- 좀비의 실상(도심 속에 이기적인 삶으로 병든 우리들의 자화상)을 알게 된 지역의 아이들이 병든 그들을 위해 모두 화합하여 아름다운 음악, 노래 (iband)를 만들어 응원하고 치유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체험연극 형식의 프로그램

#### ② 예술버스 : 일상 한 스펀, 재미 한 스펀

7)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홈페이지 참조

- 경기·강원 지역 / 지역주민대상 프로그램 / 버스
- 일상의 물건들을 해체, 변형하는 과정에서 예술적 가능성을 찾고 물건에 담긴 자신만의 이야기와 결합하여 작품에 정서를 부여하고 일상의 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발견함. 버스라는 공간에 각자의 오브제를 설치하여 하나의 전시공간을 창조함



## ③ 예술트럭 3.5톤

- 어르신 '홍' 부활 프로젝트 <쿠바로 가는 타임머신>
- 경상 지역/ 노인대상 프로그램 / 3.5톤 트럭
- 꿈 많고 패기 넘치던 어르신들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낯선 도시 '쿠바'로의 시간여행을 떠나 라틴 타악기 연주자와 열정적인 라틴댄서가 되어보는 시간. 잠시라도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잊어버린 꿈과 끼를 발산하고, 현재 삶의 위로와 의미를 되짚어보는 프로그램

## ④ 예술트럭 1.5톤

- 슬로건 : 가자! 세계속으로
- 충청·경북 지역/ 지역주민대상 프로그램 / 1.5톤 트럭
- 현실적 풍경을 프로그램 안에서 참여자들과 함께 만들어보는 작업.
- 무대 세팅을 할 수 있도록 개조된 트럭이 지역에 직접 찾아가 참여자들과 함께 전혀 다른 지역을 상상하며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무대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 ⑤ 예술선 병원선

- 기다려요 뽀기 머신
- 전남 도서 지역 / 지역주민대상 프로그램 / 병원선
- 랜덤 씨앗이 들어있는 뽀기머신에서 씨앗을 뽑아 화분에 심어보는 시간. 씨앗을 통해 바라는 무언가를 상상하며 직접 그림으로 그려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미술 프로그램

## ⑥ 돌고 도는 목소리 &lt;섬마을 음악다방&gt;

- 경남 도서 지역/ 지역주민대상 프로그램 / 병원선
- 라디오 공개방송을 하듯 어르신들과 인터뷰도 하고 신청곡이나 사연도 들어보는 사이, 자연스럽게 루프스테이션이나 음악편집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어르신들의 목소리나 웃음소리 등 일상의 소리들을 녹음하여 준비된 MR과 믹싱 및 편집을 하여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봄. 자연스러운 웃음소리, 기침, 대화 소리 등 일상의 소리들 속 리듬과 멜로디를 활용하여 새로운 음악으로 직접 창작해보는 프로그램(사운드콜라주)

## 나. 캠프형

### 1) 우락부락(友樂部落)캠프<sup>8)</sup>

#### □ 사업개요

- ‘아티스트와 놀다’ 를 핵심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예술캠프
- 2010년 시작되었으며 2017년 여름방학, 대전, 울산, 경남, 세종 4곳에서 열 세 번째 시즌을 개최함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 □ 사업목표

-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공간에서 예술가와 함께 놀며 작업하는 경험을 통해 예술을 즐기고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며 삶의 의미와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함

#### □ 프로그램 내용

- 2017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시즌 13' (대전) :판별에서 살아보기 통!통!통!
-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주제로 예술과 과학이 만나는 융복합 아티언스문화예술 캠프. 별자리를 소재로 관측, 음악회, 초대형 로봇제작, 샌드아트등 다양한 문화예술분야가 어우러짐
- 참여대상 : 11세~13세(초등학교 4~6학년) 프로그램당 75명
- 우선모집 70%-개인, 아동양육 및 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서 신청가능



8) 우락부락캠프 홈페이지 참조

〈표 3-21〉 우락부락 캠프 프로그램 세부내용

1일차(월/목)	주요내용	장소
~ 14:00	집결	프로그램장소
14:00 ~ 15:00	스토리텔링 - 샌드아트로 떠나는 판별로의 여행	"
15:00 ~ 18:00	웰컴파티	"
18:00 ~ 19:00	저녁식사	식 당
19:00 ~ 21:20	별자리관측, 특★한 음악회, 별자리조명 제작	대전시민천문대
21:20 ~	숙소이동 및 취침	숙 소
2일차(화/금)	주요내용	장소
~10:00	늦잠의 매력(기상 및 아침식사)	식 당
10:00 ~ 12:00	초대형 로봇제작 프로젝트	프로그램장소
12:00 ~ 13:00	점심식사	식 당
13:00 ~ 16:30	헬로우시티관람 및 체험전 진행	대전시립미술관
17:00 ~ 18:00	저녁식사	식 당
18:00 ~ 21:00	우리가 살아갈 우주도시 만들기	프로그램장소
21:00~	취침	숙 소
3일차(수/토)	주요내용	장소
~09:30	기상 및 아침식사	식 당
09:30 ~ 11:00	페어웰 파티 (9개의 행성을 중심으로 음악, 사진, 동영상, 마임등을 함께 제작해 즐기는 시간)	프로그램장소
11:00 ~ 12:00	안녕, 우락부락(해산)	대강당
12:00 ~	인사 및 출발	

2) 인문독서예술캠프<sup>9)</sup>

## □ 사업개요

- 진로 탐색, 미래 설계, 소통이 주제인 인문과 예술이 결합된 독서캠프
- 2박 3일간의 체험프로그램으로서 자유학기제와 연결된 진로 탐색을 주제로 하는 ‘청소년형’,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삶을 설계하는 ‘청년형’,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배려를 실천하는 ‘가족형’ 으로 대상을 나누어 운영됨

9) 독서IN 홈페이지 참조

- 강릉, 춘천, 거제, 부산, 안성, 파주, 전주, 고창, 공주, 조치원 등 10개 시·군에서 개최되며, 참가자 모집은 전국 단위로 진행됨
- 문화소외대상자와 일반참가자 구분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 □ 사업목표

- 책을 매개로 한 참여형 문화예술캠프를 운영하여 국민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진흥 및 지역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

## □ 프로그램 내용

- 2017 인문독서예술캠프 〈나를 말하고 꿈을 그리다〉 주요 프로그램

〈표 3-22〉 인문독서예술캠프 프로그램 세부내용

1 일차	오리엔 테이션 오프닝 파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리엔테이션/시설안내/안전교육/프로그램 일정안내</li> <li>1. 레드카펫 위에서 나를 말하다</li> <li>2. 초청공연</li> <li>3. 모두가 하나되는 아이스 브레이킹 댄스</li> <li>4. 프로그램별 참가자 최종 확정</li> </ul>
	플레이! 플라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의 표현 수업을 통해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청년들이 나를 바라보고 설계하는 프로그램</li> <li>◦ 소통을 하며 타인을 공감하고 알아가며 불안감을 해소하고 타인의 장점을 보고 발전의 계기를 삼음</li> </ul>
	파도치는 청춘, N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통과 나눔, 양보와 배려 등의 인문적 가치를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li> </ul>

	Wave!	
	미래를 드로잉하다	◦ 모든 예술적 창작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으로부터 시작되며 누구나 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2 일 차	영상으로 보여지는 나의모습	◦ 문화예술프로그램 중 영상프로그램에서는 그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고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 ◦ 나의 이미지, 상대방의 이미지를 사진 촬영과 영상 편집을 통해 완성하는 프로그램 ◦ 완성된 영상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함
	플레이! 플라이!	◦ 시선과 자세가 바르게 되며 자신감이 상승하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찾는 프로그램
	파도치는 청춘, New Wave!	◦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개인의 생각, 사상이나 가치관 감정을 표현하며 비언어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프로그램
	미래를 드로잉하다	◦ 관념적인 시선과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개성있는 시선과 자유로운 드로잉을 통해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하는 프로그램
3 일 차	영상으로 보여지는 나의모습	◦ 사진, 영상의 매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사진과 영상의 이해) ◦ 스토리텔링 또는 콘티뉴이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여 스토리 텔링 작성에 응용(스토리텔링 작업) ◦ 편집기술과 편집 틀에 대한 기능 설명, 실습(편집툴 익히기)
	백제의 향기를 느끼다	◦ 백제문화를 직접적으로 느끼며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나를 이해하고 알아 가는 시간
	플레이! 플라이!	◦ 자기어필시대에 다양한 표현을 배우고 나에게 맞는 표현을 찾으며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프로그램
	파도치는 청춘, New Wave!	◦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스트레스 요인인 취업과 진로 등 '사회생활' 이라 일컫는 단체생활에 댄스는 스펙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으며 잠재된 '흥' 을 일깨워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성을 향상 시키는 프로그램
	미래를 드로잉하다	◦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연함을 해소시켜주며 내재된 창의적인 감각을 발견하는 프로그램
	영상으로 보여지는 나의모습	◦ 실제 촬영을 하고, 앞서 작성한 스토리텔링에 맞춰 편집함 ◦ 2시간 동안 스토리텔링에서 상상했던 이미지를 파트너와 번갈아 촬영함 ◦ 서로 촬영한 상대방의 이미지를 놓고 선택하여 편집하고 음악을 넣어 서로의 내면으로 다가감. 파트너가 찍어준 나의 이미지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를 영상 편집으로 묘사함 ◦ 파트너가 생각하는 나, 내가 바라보는 나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발견하여 여러 면으로 나를 조망해 보는 시간
작품발표회 “꿈을 그리다” /클로징 파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형 페어웰 파티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박 3일간의 여정 영상 시청</li> <li>- 프로그램 별 참여자 소감 발표</li> <li>- 프로그램별 결과물 공유</li> <li>- 전체 참여자 친목의 시간</li> </ul> </li> </ul>
百人百色の 꿈을 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진로와 동일한 그룹의 참가자들과 추천도서를 공유하고 고민과 프로그램과 책을 통해 변화된 생각을 공유</li> <li>◦ 분야별 멘토들과 모둠간의 밀착 인터뷰 (20분씩)</li> </ul>

#### 다. 지역발굴형

##### 1) 더불어 숲 축제<sup>10)</sup>

##### □ 사업개요

- 구로구 향동 서울푸른수목원에서 펼치는 인문학/예술축제
- 2014년부터 해마다 진행되어 구로구의 지역 축제로 정착함
- 풀밭인문학콘서트, 풀밭음악회, 시민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 세 가지 카테고리가 기본구성
-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주최, 성공회대/구로문화재단/문화예술협동조합 ‘결애’ 주관, 구로구 후원

##### □ 사업목표

- 서울푸른수목원의 자연공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찰하고 공감하며 더불어숲이 되는 자리를 만들어 냄

##### □ 프로그램 사례

- 제목 : 2017 ‘더불어 숲 축제’
  - 기간 : 10. 21(토) ~ 22(일) / 2일 간

#### 〈표 3-23〉 더불어숲축제 프로그램 세부내용

<sup>10)</sup> 더불어 숲 축제 페이스북 참조



구분	세부내용
풀밭 인문학 콘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준 시인 슬픔은 자량이 될 수 있다; 우리 곁에서 빛을 내고 있는 일상들이 어떻게 시적인 것으로 변모되는지 함께 이야기함</li> <li>◦ 김탁환 작가 만남 세월호 민간 잠수사 김관홍씨와의 만남을 통해 &lt;거짓말이다&gt;와 &lt;그래서 그는 바다로 갔다&gt;를 쓴 과정과 의미를 나눔</li> <li>◦ 권오준 작가 생태동화 북콘서트 '비비를 돌려줘' ; 알을 두고 펼쳐지는 멧비둘기와 암탉의 특별한 이야기를 노래와 함께 들어보는 생태동화</li> <li>◦ 더숲트리오 (성공회대 김창남/박경태/김진엽 교수) 신영복 '담론' 함께 읽기 북콘서트</li> <li>◦ 방송인 김미화 웃픈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li> </ul>
풀밭 음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리슨호텔 &amp; 정밀아 - 소중한고 아름답고 가득한 음악공연</li> <li>◦ 국악그룹 한달음애 - 바람과 흙과 나무의 노래</li> </ul>
시민 참여· 체험 프로 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께 걷는 더불어숲길 투어</li> <li>◦ 동화연극 '철길을 걷는 아이' 시즌2</li> <li>◦ 푸른수목원 생태아트트래킹</li> <li>◦ 가족이 함께 쓰는 손글씨, 서화 체험</li> <li>◦ 함께 만드는 생태울타리, 새집</li> <li>◦ 친환경 천연탈취제 만들기</li> </ul>

## 2) 옥천 지용제<sup>11)</sup>

11) 옥천문화원 홈페이지 참조

### □ 사업개요

- 1988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5월 옥천에서 정지용시인과 그의 시를 기리며 개최하는 문학축제

### □ 사업목표

- 한국 현대사의 선구자이자 민족의 정서를 잘 표현한 정지용시인의 문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킴



### □ 프로그램 세부내용

- 제목 : 제30회 지용제
  - 문학의 향기 가득 풍성한 문학 잔치
  - 제30회 지용제 개막식, 제27회 지용문학상 시상, 제19회 지용신인문학상 시상, 제14회 전국지용백일장, 지용문학포럼, 가족시낭송회, 시인과촌장, 문학워크숍, 시인과의대화 등의 행사가 진행되고 향수음악회, 무대공연, 학생사생대회, 생가방문행사, 불꽃놀이, 군민노래자랑, 금강MTB 향수100리 라이딩 등의 공연 및 행사가 펼쳐짐
  - 전시행사로 전국향수사진공모전, 향수사진동호회 회원전, 지용회전, 옥천군 공예품 전시회 등이 있고, 특별행사로 문학관광열차운행, 지용사이버퀴즈행사, 지용시 외워보기 이벤트, 가훈 써주기, 판화찍기, 전통다도시연회 등을 진행
  - 시인과 함께 기차타고 떠나는 낭만여행 시문학열차  
정지용문학상 수상자를 태우고 서울에서 옥천까지 가는 열차



• 시인과 함께하는 향수의 고장 옥천으로의 문학기행

시문학열차 이용객 편의를 위해 시문학 투어 버스를 운영. 『정지용 시에 나타난 고향의식』, 『정지용 시에서 본 주제의 자아탐색과 동심의 미학』 등의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도예, 공예, 서예, 미술 등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둘러보며 시문학 문화제 속에서 다양한 예술작품 감상. 시속의 실개천 언저리에 위치하고 있는 정지용생가와 정지용문학관 관람을 마치고 옥천의 명소 장계관광지로 이동하여 호숫가 산책로에 조성된 정지용 시비와 지용문학상 수상자 시비 등을 감상. 시인의 생가 방문 시 포토존을 설치하여 기념촬영 및 즉석인화 서비스 제공



## 라. 대상자 발굴형

### 1) 자바르페의 소리나눔 프로젝트

#### □ 사업개요

-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악을 만지다’ 라는 기타 교재 발간. 서적과 함께 육성 설명으로 제작된 교육용 CD제작
- 저시력자들을 위해 서적 형태의 교재를 만들었고 글씨를 크게 하여 보다 쉽게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제작함
- 자바르페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타수업 진행
- 기타 수업을 들었던 3인의 수강생이 ‘소리빛 밴드’ 를 결성하여 공연함

#### □ 사업목표

- 청각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시각장애인 중 스스로의 힘으로 기타연주를 하고자 하는 대상을 위한 교재 발간



#### 마. 소결

- 국내 향유 사업은 전반적으로 체험식 프로그램들이 증가하는 추세
- 감상은 체험의 원동력이자 상호보완적 관계
- 예술단체(개인)의 공연이 주는 감동은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임
- 이는 순회사업의 취지 중 전 국민의 문화해득력 증대로 직결되므로 그 영향력이 큼
- 그러므로 순회형 사업이 참여형 프로그램을 단순 모방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유의 기능을 강화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 문화접근성을 확대하는 기본역할을 넘어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공연의 질적 향상, 그리고 질적 향상을 피하기 위한 지속성을 담보해야 함
- 놀이와 교육적 측면을 강화한 캠프형 사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적용 가능
- 공연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프로그램을 공연과 함께 엮어 짧은 예술캠프형식의 순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음.
- 예술가들과 함께 하는 만남이나 놀이 시간을 추가할 수도 있고 음악감상 후의 느낌을 그림이나 시로 표현해서 작품으로 완성시킬 수도 있음
- 이는 어린이 대상 사업의 질적 평가지표로 활용 가능. 공연에 대해 단편적으로 응답하게 만드는 설문형식보다 예술적이고 교육적인 평가방법임
- 지역발굴형 사례는 지역의 숨겨진 공간이나 문화적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임
- ‘더불어 숲 축제’의 경우 수목원이라는 자연환경에 인문예술프로그램을 덧입혀 주민들의 일상에 자리잡은 사례이고, ‘옥천지용제’는 시인을 테마로 지역 축제로 정착한 경우임
-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고유의 문화아이템을 활용할 때, 이는 작은 축제 형태로 성장

할 개연성이 높으며 지역밀착형 창작순회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음

- 대상발굴형은 지역의 구분 없이 문화소외인구 중 보다 구체적인 대상을 찾아내어 시행하는 프로젝트임
- 시각장애자 중 기타연주를 희망하는 ‘소리빛 밴드’ 또는 세월호 가족으로 구성된 4.16극단, ‘노란리본’ 과 같이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문화적 삶에서 멀어지거나 쉽게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함
- 그러한 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면 그 결과물은 일회성 공연을 넘어 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음
- 소수를 위한 문화향유를 중시하는 측면에서 순회사업 프로그램으로 관련 콘텐츠를 개발할 소지가 있음

## 2. 국외 문화국가 문화향유사업 사례

### 가. 영국 사례

- 영국의 문화정책은 문화, 스포츠, 미디어의 발전과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와 더불어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웨일즈 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Wales), 스코틀랜드 예술위원회(Scottish Arts Council), 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Northern Ireland)가 활동하고 있으며, 국립복권기금(The National Lottery) 역시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영국 문화예술 지원방식은 존 케인즈에 의해 천명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는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으로 대표됨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밀접히 연관되며, 특히 부모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그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예술 향유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외연화되고 있음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예술 활동, 예술 교육 등을 통하여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잠재적 역량을 계발하는 한편 그와 동시에 지역사회 단위에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다층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청소년 대상의 ‘Creative Partnerships’, 시스템아 스코틀랜드, 시스템아 잉글랜드 등 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영국 내 낙후된 지역(Stirling, Lambeth, Liverpool, Norwich)에서 시작하고, 빈곤지역(Raploch), 도시재생 사업지역(Gateshead, Nottingham, Leeds, Telford & Wrekin) 등으로 확대 된 점을 살펴보면, 이들 지역에서 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세대간 갈등, 사회 갈등 봉합, 지역 문화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범죄 예방 등 다양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1) 시스테마 스코틀랜드(Sistema Scotland)

#### □ 시스테마 스코틀랜드의 목표

- 시스테마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성공회 대주교, 교수, 인기 방송 패널, 스코틀랜드 예술위원회장을 역임했던 지역 유력 인사인 R. 홀로웨이(R. Holloway)가 엘 시스테마를 모델로 음악교육을 추진하고자 만든 비영리 단체
- 스코틀랜드는 영국 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취업률, 상급학교 진학률이 낮고 실업률, 10대 임신률,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홀로웨이는 이들 지역에 엘 시스테마를 도입함
- 시스테마 스코틀랜드는 ‘경제적, 문화적 소외 지역에 음악을 통한 삶의 변화, 지역사회 강화, 미래의 성장’ (Scottish Government Social Research, 2011:1)을 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 시스템아 스코틀랜드의 영향

- 시스템아 스코틀랜드는 직접 참여하는 학생 뿐 아니라 부모를 비롯한 지역에 음악적, 사회적으로 여러 영향을 끼쳤음
- 스코틀랜드정부연구소(Scottish Government Social Research)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오케스트라 활동 결과 “학습 참여도와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건강을 해치는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켜 가족, 고용주,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으며, 구직에 필요한 능력도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음
-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부모 및 보호자 설문조사 결과, “오케스트라 빅노이즈 활동 후 이들의 100%는 아이들의 자신감 향상, 93%는 아이들의 행복도 향상, 79%는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 43%는 아이들의 행동이 나아졌다” 고 답변

#### □ 시스템아 스코틀랜드 구조

- 시스템아 스코틀랜드는 지역사회,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특별한 노력을 기울임. 이 중 ‘음악가 초대하기(Take a Musician Home for Tea)’는 방학 중 학생들이 종종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도 참석하는 작은 파티에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을 초대하는 프로그램으로, 평소 여러 이유로 연주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들도 아이들의 연주 모습과 활동을 직접 눈앞에서 보게 되어 빅노이즈 활동에 대한 이해와 연대감을 키우게 됨
- 시스템아 스코틀랜드의 활동은 예술가, 민간 전문가, 정부, 방송,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 여러 주체들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함
- 초기 동력은 주로 민간 영역의 자발적 활동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정부가 민간 영역의 성과를 인정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이들의 조직과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으로써 민간 조직의 유연성,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 파트너십뿐 아니라 정부 지원에 힘입은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음

## 2) 카드보드 시티즌(Cardboard Citizens)

### □ 카드보드 시티즌의 성립과 목표

- 〈카드보드 시티즌〉은 1991년 영국 런던에서 아드리안 잭슨(Adrian Jackson)이 노숙자 경험이 있거나 노숙자가 될 위험이 높은 사람들과 협력하여 창립한 영국 유일의 노숙자 전문 극단임
- 브라질의 이론가 아우구스토 보알의 ‘약자를 위한 연극’ 이론에 바탕을 둔 작품을 공연하며, 공연을 통해 노숙인들의 삶에 실제적 변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카드보드 시티즌의 과정과 역할

- 〈카드보드 시티즌〉은 월급제 극단으로 운영되며, 노숙자 단원들은 정식 극단원이 되었는데 대부분 자발적으로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함
- 〈카드보드 시티즌〉은 1 대 1 어드바이스, 안내 및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며, 또한 White chapel을 비롯한 런던 전역의 다른 장소에서 공연 예술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제공함
- 노숙자 경험이 있거나 노숙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누구나 〈카드보드 시티즌〉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매년 1,500명의 노숙자와 노숙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함
- 〈카드보드 시티즌〉 재정은 복권기금(The National Lottery),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지원을 비롯하여, 개인 및 기업후원으로 마련됨
- 영국예술위원회는 왕립 셰익스피어극단(RSC) 등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는 예술 단체들이 지금까지 소외계층에 대한 역할을 소홀히 해왔다고 판단하고, 예술단체들에게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지원금 협약문서를 통해 주문하고 있으며, 이에 셰익스피어극단과 〈카드보드 시티즌〉은 공동작업을 거쳐 추방과 상실의 주제를 다룬 셰익스피어의 ‘페리클레스’를 공연함<sup>12)</sup>

### 3) 영국의 ‘Creative Partnerships’

#### □ ‘Creative Partnerships’의 목표

- ‘Creative Partnerships’ (이하 CP)는 ‘학교가 창의력을 죽인다’는 도발적인 제목의 강의로 유명한 창의성 전문가 K. 로빈슨(K. Robinson)이 창의력 증진 교육을 위해 교실에 예술가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12) 「커뮤니티 아트 진흥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24쪽

한다는 주장을 당시의 신노동당 정부가 수용한 결과로 시작되었음

- CP는 문화예술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삶의 일부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항상 향유되어야 한다는 신노동당의 문화예술 철학과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양성된 창의적인 인재들이 경제 주체로 활동하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만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으로 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 ‘Creative Partnerships’ 의 영향

- ACE가 2007년에 펴낸 보고서 『This Much We Know』를 보면 NFER(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 Research)은 2006년 CP에 참여했던 학생 1만 3000명을 추적·연구한 결과 같은 학교의 비참여 학생들에 비해 국가 교육 과정 평가(National Curriculum Assessment)의 성취도 평가에서 영어, 수학, 과학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발표했음

- 영국시장조사협회(British Market Research Bureau, BMRB)가 학교 교장들을 상대로 2006년 4월에 완료한 독립 조사에 따르면 교장들은 대부분 CP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알 수 있음. 그들은 CP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감, 의사소통 기술, 성취동기가 상승했고, 중학교의 경우 학교 수업의 즐거움, 학습 능력, 행동 부분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상되었다고 평가했음. 결론적으로 학교교육 수준, 학력, 시험에 국한되지 않는 총체적인 학생 발전에 대한 관심과 같은 분야에서 CP가 긍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했음

#### □ ‘Creative Partnerships’의 구조

- CP의 주체를 보면 예술 과목 교사와 예술가 외 CP코디네이터라는 매개 인력이 존재함
- 코디네이터는 필요한 행정과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학교 교사와 예술가를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여 예술가들이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려 노력했음
- CP는 참여하는 모든 학교에 동일한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 운영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지역별 사무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reative Director)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CP가 지역학교, 지역예술가, 예술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음

[그림 3-7] 영국 ‘Creative Partnerships’ 구조



## 나. 미국 사례

- 미국의 문화 및 예술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의 문화부서가 아닌 연방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을 통해 예술을 지원하고, 민간 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재정 지원, 문화예술 관련 기부금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통해 민간의 기부와 지원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미국 문화 ·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은 현장에서 민주주의, 다원주의를 현실화하고 미국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 은 다양한 측면에서 계층 간 문화적 향유 능력의 차이를 해소하고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문화예술 향유를 지지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로 작용함
- ‘다문화주의적 신념’ 으로 인해 다양한 인종, 문화가 어우러져 개발, 보존되는 문화유산을 구현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음
- 민주주의, 다원주의 현실화를 위해 ‘차별금지’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신체적 어려움을 지닌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관객 개발, 정보 전달 체계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

### 1) 메데아 프로젝트(MEDEA PROJECT : INCASERED WOMEN)

#### □ 성립과 목표

- 메데아 프로젝트는 미국의 무용수, 작가 로데사 존스(Rhodessa Jones)가 여성 출소자들의 교육과 공연을 위해 만든 프로젝트로 여성재소자를 위한 춤 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음. 원래 교도소가 원한 것은 에어로빅 수업이었지만, 그녀는 인문학에 기초를 둔 춤 교육을 강행했고, 결국 메데아 프로젝트를 설립함

- 미디어 프로젝트의 목표는 여성범죄, 범죄인에 대한 편견의 극복, 일상 속에서의 사회정의 구현, 사회 적응을 높이고, 재범을 감소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 과정과 역할

- 1989년 존스는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감옥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개발 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이 만난 여성 재소자들의 삶을 기반으로 한 <Big Butt Girls, Hardheaded Women>을 제작했음
- 작품 창작 과정에서 존스(Jones)는 여성 재소자들이 죄책감, 우울증, 자기 혐오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이들의 재범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이에 존스는 예술 기반 접근법이 감옥으로 돌아오는 여성의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미디어 프로젝트를 설립하였고, 결국 작업 결과 재수감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성과를 얻었음

- 2008년 미디어 프로젝트는 UCSF의 여성 HIV 클리닉과 힘을 합쳐 21 세기에 바이러스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의 의미를 탐구하는 The Medea Project : HIV Circle을 만들었음
- 그 이후 HIV에 감염된 여성들의 이야기와 진실에 대해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공연함

## 2) 기금 지원의 다양한 사례

- 국내 문화소외계층 대상의 기금 사업의 경우 대부분 순회공연의 형태로 지원되나, 미국의 경우 문화접근성 보장과 관련된 예술프로그램, 경제적 소외가 문화적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자녀들 위한 문화예술교육,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음.

### (1) 문화접근성 보장과 관련된 예술프로그램

#### ① 아이오와 주의 'I-CARD

- 미국 아이오와 주의 'I-CARD(Iowa-Cultural Alliance Recruitment and Development)' 는 아이오와 주 내 5개의 지역단체(Community Action Agency)와 Iowa 예술위원회 및 지방예술단체 등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추진된 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시설에 무료 및 할인입장이 가능한 카드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짐
- 이 카드를 통해 경제적 빈곤과 상관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했음.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공연장인 링컨센터에선 저소득층과 흑인계층에 대한 가격 장벽을 낮춰 신입회원 56%가 저소득층, 44%가 흑인계층으로 이뤄지는 결과를 만들
-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역서비스보조금(Community Service Block Grant)과 지역예술위원회(Iowa Arts Council)가 지원하는 기금이 활용됨

## ② 오하이오 주의 'YouthReach Ohio'

- 오하이오 주의 'YouthReach Ohio' 는 오하이오 예술위원회의 프로그램으로 At-Risk Youth(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학교중퇴자, 홈리스, 폭력배, 임신부, 미혼모 등이 포함)를 대상으로 함. 젊은이들에게 긍정적인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긍정적인 예술 경험을 가질 경우, 비행이 줄어들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되며, 주어진 과제를 끝마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함
- 2년간에 걸쳐 기금이 주어지며, 첫 해 말 보고서에 의해 2년차 기금 지원여부가 결정되고, 예술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들 중 한 해 운영예산이 100만 달러가 넘는 단체들만이 사회봉사 단체를 파트너로 삼아 지원할 수 있는 경쟁적인 기금이며, 지원자는 한 해당 최소 \$25,000에서 최대 \$35,000까지 신청 가능함

## (2) 연구를 포함한 기금

### ① 'Challenge America'

- 미국 예술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는 단체들의 프로젝트나 예술가들의 작업을 지원함. NEA는 기금의 40%는 각주와 지역의 예술기관에 할당됨. 이 중 미국의 지역 사회 강화를 목표로 'Challenge America'기금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Leadership Initiative'는 NEA가 다른 전국적 조직, 연방 등과 협력하여 진행함
  - Access Ability는 기존의 여러 예술 프로그램을 노인 및 장애인, 장기 입원 환자 등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이들이 예술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표를 두었음
  - NEA의 Access Ability 부서는 미국의 보건 후생부와 제휴하여 노인들에게 예술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3개년에 걸친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러한 연구에 대해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nd Guttman Foundation이 연구비를 지원함



## ② 'Building Diverse Audiences Program'

- 오하이오 주는 'Building Diverse Audiences Program'을 통해 예술단체에 종잣돈 (Seed money)을 제공하여 단체 스스로 관객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키려 함.
- 타겟 관객으로(Target Audiences)는 흑인, 애팔라치아인, 아시아인, 라틴계, 미국 원주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준비와 자문위원회에 대상자들을 포함시켜야 하며, 특정 집단 및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개발담당자는 그 집단 출신이어야 함

□ 관객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므로 4년에 걸쳐 진행됨

3)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올라(Youth Orchestra, YOLA)<sup>13)</sup>

□ 성립과 목표

-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베네스엘라 엘시스테마의 대표적 음악가로 알려진 두다멜을 지휘자로 영입한 뒤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였음
-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청소년 오케스트라인 올라는 소외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악기, 음악 교육 및 학습을 지원하여 그들이 핵심적인 시민, 지도자, 변화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케스트라 교육 프로그램
- 2014년 YOLA at EXPO(LA 남부의 엑스포 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YOLA at HOLA(LA의 램퍼트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단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YOLA at LACHSA(LA 카운티 예술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YOLA Neighborhood Project(학생, 가족, 지역민 등이 포함된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여러 음악학교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 올라는 LA필하모닉의 음악교육 프로그램 기금과 도요타, 월트 디즈니와 같은 민간 기업, 로즈 힐 재단(The Rose Hills Foundation)등 여러 민간 재단의 후원으로 운영됨



13) 참고 : 홈페이지 <http://www.laphil.com/education/yola>



#### □ 올라의 역할

- 전체 교육 활동의 25%가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지며, 교육 장소로는 공립학교가 45곳으로 압도적이었으나 그 외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사립학교, 교회 등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음
- 2013년에 ‘엘 시스템마형 프로그램들의 전국연합 조사리포트 요약본’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교육 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8996명으로 2011년 5847명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음
- Yola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Yola의 2016년 졸업생 중 100%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90%가 대학에 진학했다고 함
- 올라 졸업생 중 현재 서울시향 타악기 주자로 활동하는 연주인이 있어서 현재 서울시향의 교육사업과 세종꿈나무 오케스트라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영향은 확장되고 있음

#### 다. 일본 사례

##### 1) ‘ARTS for HOPE’ 프로젝트

#### □ 성립과 목표

-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과 해일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한 뒤 일본의 문화예술계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예술가와 비영리단체, 기업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민간 문화 지원 활동을 펼쳤음

- 전국의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동북부 지역으로 향해 재해지 피난소에서 충격에 휩싸인 어린이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예술가들이 피해 지역의 임시 거주지, 초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여러 활동을 펼쳤음
- 1999년 비영리 단체 ‘Wonder Art Production’ 이 대지진 이후 이 지역의 지원을 위해 ‘ARTS for HOPE’ 프로젝트를 구성함



#### □ 과정과 역할

- 타카하시(Takahashi)는 “자연 재해 피해 지역의 유소년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회복되고,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ARTS for HOPE의 미션이며, 기본 프로그램은 ‘Wonder Art Production’ 에서 시작한 미술관 워크숍과 병원에서 진행된 예술프로그램을 근간으로 한다” 고 밝혔다

- 또한 ‘ARTS for HOPE’의 향후 비전으로 “피해 지역 사람들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펼칠 것이며, 수익성 있는 활동을 고안하여 피해자들을 지원” 할 것임을 분명히 했음
- 동북부 지역에서 많은 예술단체들이 재해로 인해 파손된 문화재, 조각 등 예술 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복원하는 활동, 취소된 각종 콘서트와 공연을 진행하며 일상생활을 복구하는 노력, 피해자가 기거하는 피난소를 방문하여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는 등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각종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뜨개질, 수공예품 제작 등 실제 판매가 가능한 물품 제작이 시도되기도 했음.
- 이에 일본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동북부에 고향을 둔 여러 유명 인사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배포하여 모금 및 지원 활동에 좋은 효과를 보기도 했음

#### □ 프로그램 내용<sup>14)</sup>

- ‘ARTS for HOPE’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24〉 ‘ARTS for HOPE’ 프로젝트 프로그램 내용

명칭	내용
프로젝트 FUKUSHIMA	후쿠시마의 문제를 세계에 공유하기 위해 음악가, 시인 등 후쿠시마와 인연이 있는 예술가들이 모여, 종합적인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프로젝트
방긋방긋 스마일 프로젝트	미야기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내의 학교, 병원, 피난소 및 특별 요양 노인 시설 등을 순회하면서 피해자들이 참가하는 인터랙티브 음악 세션을 벌이는 활동
Arts for Hope	재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예술을 통한 마음 치료(호스피탈 아트)를 하는 프로젝트
재해부흥지원♥ 마음을 잇는 아트 프로젝트	피난소 아이들을 대상으로 춤, 미술 등의 워크숍을 진행하는 프로젝트
100인의 웃는 얼굴을 보내는 프로젝트	피난소에서 희망자의 사진을 촬영해 사진과 메시지를 흠여져 있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에게 보내는 프로젝트
Tohoku Craft	아티스트가 피난소를 방문하여, 피난소에 있는 아들과 뜨개질이나 수예, 골판지를 활용하여 가구 만들기 등 실용적인 것을 함께 만드는 모임

14) 「2012 문화 정책 동향 분석, 일본문화관광정책: 2011년과 2012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 라. 콜롬비아 사례

### 1) 콜롬비아의 바투타(Batuta)

#### □ 바투타의 성립과 목표

-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내전 국가로 콜롬비아 정부군과 반군이 충돌한 약 50년간 2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졌음 종식 되지 않는 내전과 인종, 이념적 갈등 속에서 중·고등학교 진학률은 약 50%로, 10대 청소년들의 절반 가량은 학교 교실이 아닌 거리에서 마약과 게릴라, 그리고 내전이라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
- 지휘봉이라는 뜻을 지닌 바투타는 엘 시스템아를 모델로 한 콜롬비아 음악교육 프로젝트로 슬로건은 ‘음악을 통한 감동 (Be moved by music)’ 으로, 바투타는 음악 교육과 오케스트라 발전뿐 아니라 음악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범죄나 사회적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아이들과 가족,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짐



#### □ 바투타의 과정과 역할

- 바투타는 5개의 지역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재단, 기관과의 단계적 파트너십을 통해 자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 이것은 과거 활동이 중단되었던 위기에서 얻은 교훈으로, 별도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 악기 은행, 음악 도서관, 인쇄 출판 및 시청각 자료 제작 등 활발하게

추진하는 바투타의 확장된 활동에는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조직 운영 방식이 큰 역할을 담당 함

- 바투타의 예산은 공공기관 지원 약 70%, 그리고 협력 기관 중 하나인 파운데이션 볼리바르(Fundación Bolívar)와 같은 재단 지원 30%로 이루어져 있음.

## 마. 프랑스 사례

### 1) Opera de Paris Bastille

#### □ 문화예술 불평등을 오페라로 치유하다

- 프랑스 파리 오페라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은 1980년대 오페라의 대중화를 내걸고 새롭게 세워진 현대식 오페라 극장으로 완공 후 시민들이 절반 가격에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학교에서의 10개월 그리고 오페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학교 부적응학생 포함,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지역의 어린 학생들에게 장기적인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예술향유의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파리국립오페라와 교육부 파리/베르사유/크레테유지역의 아카데미가 함께 연계하여 기획한 프로그램임

## 제4장

---

###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순회사업 개선 방향

#### 제1절 : 문화향유 정책 방향 제시

1. 문화향유 정책의 기본 방향
2. 문화순회 사업 개선 방향

## 제1절 : 문화향유 정책 방향 제시

## 1. 문화향유 정책의 기본 방향

## 가. 문화향유 정책 진단

## □ 양적 성장과 이에 못 미치는 질적 수준

- 예산과 수혜범위가 성장했고 가시적인 만족도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소외계층의 범주도 초기보다 다변화되었고 이에 맞추는 다층적인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럼에도 문화향유정책이 여전히 단기적 프로젝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문화해득력과 자생적 문화역량을 성장시키는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따르고 있음

**문화 해득력(Cultural Literacy)**

-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맥락을 식별해 내는 것. 인간이 행하는 문화적 행위 자체 및 과정, 산물 등 문화적 총체에 대해 이해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능력을 지칭함
- 문화 소외계층의 발생 원인을 접근성 (accessibility), 문화해득력 (cultural literacy), 문화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기도 함
- 문화를 개인의 소비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재화라는 전제 아래, 국민들의 문화해득력 향상은 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문화소외를 극복하고 적극적 의미에서의 문화향유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가치임

## □ 국가중심의 문화향유정책에서 탈국가적 관점으로서의 정책 전환의 필요성

- 한국의 문화정책은 꾸준히 변모해왔으나 여전히 국가중심성과 정부주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전통적 산업 중심의 성장지향형 국가 단계에서는 민간영역의 부족한 지점들을 국가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국가주도 모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시민이 중심이 되는 복지국가 단계에서는 문화향유를 포함한 문화정책 역시 민간자율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국가와 공공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함
- 행정중심의 문화향유 정책의 한계 역시 국가주도 문화향유정책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계량적 성과주의 관점에서 정책과 사업을 평가하고 환류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지점임
- 국가 문화정책의 주도적 역할을 민간과 시민사회로 이동시키는 노력이 점진적으로 필요하며 문화향유 정책 역시 그런 큰 흐름을 위해 민간역량을 성장시키는 시도가 필요함

#### □ 정책의 지속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 구조의 필요성

- 지난 20년 이상 공공정책에서 문화향유에 대한 의제가 만들어지고 정책이 사업으로 연결되었으나 여전히 일반 시민들의 공론장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음
- 정책의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문화 소비 형태가 사적소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공공의 문화향유 정책과 일반적 시민들의 문화활동의 접점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
- 또한 공공 영역의 정책이 단위 사업 간의 유기적 연계 고리 없이 프로젝트 형태로 산발적으로 발신되면서 민간에서 문화향유의 문제를 자기 의제화하는 동기부여가 잘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런 정책과 대상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가 관건임
- 참여정부 이후 역대 정부들은 거의 모두 문화향유와 문화복지를 주요한 정부의 목표로 삼았지만 이를 사회적 논의로 확산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었음
- 이는 90년대 후반 이후 성과관리 위주의 공공행정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한데 문화향유 정책의 지속성과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단일 사업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 구조 전반에 대한 소통 기능의 강화를 통해

문화향유 정책을 재구조화하는 시도가 필요함

## 나. 문제 진단에 대한 전문가 의견

### □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양적 성장

- 소외계층 사업 대상 및 수혜범위의 양적인 확대로 문화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줌
-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서비스는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문화향유 정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함
- 다양한 층위의 소외계층 세분화로 문화소외 대상의 틈새를 찾아내 수혜대상을 확대함

### □ 문화순회사업의 불안정한 정체성

- 매 년 사업 구조가 조금씩 바뀌면서 계획단계-집행단계-성과및환류단계 등 사업이 안정적인 지속성을 갖지 못함에 따라, 문화순회사업의 정체성이 뿌리내리지 못함(실제 문화순회사업이 예술위원회로 이관된 3년의 시간은 한 사업의 양적 확대기간에 불과해, 안정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속기간이 필요함)
- (세부 정책 사업에서)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에서 ‘찾아가는’, ‘맞춤형·발굴형’ 프로그램으로서의 차별성은 확보했으나, 사업의 정확한 방향성이 확립되지 못하여 대표 세부사업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음.
- 사업의 정체성이 취약하면, 브랜드(신나는 예술여행) 및 홍보계획은 정확한 타깃을 잡거나 전략수립을 할 수 없어, 브랜드 가치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 지역에 맞춤형 향유콘텐츠 및 프로그램 마련의 딜레마

- 문화순회사업을 포함한 문화향유 사업이 그 고유 목표 이외에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이 명시되어 있고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성격상 예술진흥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 문화향유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연단체는 실비(1회 공연비 500만원의 내외)를 자원받는 상황이라는 금전적 제약, 단년도 사업 추진과정에 따른 시간

적 제약, 현장상황에 따른 공간적 제약,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만 하는 소통의 제약, 대중성이 낮은 예술공연을 할 경우 작품의 질과 관계없이 낮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예술성(창작)의 제약 등 프로그램 생산자로서의 제약 조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함

- 향유대상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은 문화향유의 질적 성장과 예술진흥이라는 이중적 목표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개발과 향유가 이분화 되어 있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

#### □ 실적 위주의 양적평가 지표 및 평가시스템

- (문화격차 해소를 증명하기 위해서) 전체 인구의 몇 %가 문화순회사업의 혜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양적평가도 의미미하겠지만, 문화격차는 단기간(혹은 일회성)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님. 지속적인 문화순회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변화와 가치를 측정하는 질적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문화순회사업의 핵심대상자가 소외계층 및 사회 취약계층 일 때, 수혜자의 적극적인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면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한 평가방식 도입이 필요함

### 다. 현황에 따른 문화향유 정책의 방향 분석

#### □ 문화향유 정책 위상과 방향에 대한 재조정 필요

-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생활문화영역과 함께 문화향유와 문화복지 영역을 예술정책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전반적 프레임의 재구조화가 필요함
- 문화정책이 갖고 있는 공공 사회정책의 성격에 따라 현재까지의 자원들과 정책 사업들을 사회보편의 공감 속에 녹여내는 전환이 필요

#### □ 문화향유 정책의 프레임 재조정을 위한 SWOT분석

〈표 4-1〉 문화향유 정책 프레임 SWOT 분석

		강점(S)	약점(W)
		S1 : 양적 확산 S2 : 수요자의 다변화 S3 : 공공재원의 안정성	W1 : 입체적 프로그램 부족 W2 : 수요자의 문화 역량(문화해득력) 성장의 한계 W3 : 사회적 인지도의 부족 W4 : 정책의 안정적 지속성 부족
기회 (O)	O1 : 삶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문화수요 증대 O2 :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다양성 증가 O3 : 분권가치 확산과 시민역량 성숙	S+O	W+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성 강화된 프로그램의 확산</li> <li>◦ 분권 구조에 조응하는 문화향유 정책 시스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li> <li>◦ 수혜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 개발</li> </ul>
위협 (T)	T1 :성과주의 관점 평가시스템의 지속 T2 :경제 상황의 예측 불가능	S+T	W+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다변화에 따른 평가 지표의 재설계</li> <li>◦ 문화향유(문화복지)의 범사회적 의제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향유 정책 일관성을 위한 플랫폼과 네트워크 구축</li> </ul>

## 라. 문화향유 정책 기본 방향

- (관점의 전환) 시혜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문화소외 계층을 포함한 시민과 함께 문화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발상의 전환
- (사업 및 프로그램의 심화)
  - －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콘텐츠에 조응하는 문화향유정책 사업의 다원성 강화

- 수혜자 및 다양한 영역에서의 새로운 시도가 실험되는 혁신적 프로그램 시도

#### □ 플랫폼 및 네트워크

- 지역의 문화 현장과 일상의 향유 영역을 매개하는 개방형 플랫폼의 재구조화
- 문화 향유 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제반 사회 영역과의 연계성 강화

#### □ 평가 및 환류체계, 홍보

- 문화향유의 철학적 지향과 방향성을 담은 평가 지표 마련
- 문화향유 사업의 성과와 가치의 사회적 확산

## 2. 문화순회 사업 개선 방향

### 가. 관점의 변화가 투영되는 정체성 확립

- 그 간의 문화순회사업이 양적 확산과 꾸준한 사업 개선에도 불구하고 행정(관리) 주도성과 시혜적 관점이 큰 틀에서 변화하지 못하였고 사회적 가치를 외화시키는데 한계가 존재했음

#### □ 재원과 사업 구조 안정화

- 순회사업의 지속적 역량 축적을 위해서는 재원과 사업구조 안정화를 통한 기반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
- 사업 구조 안정화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수혜자와 수행자 모두가 사업의 정체성을 인지할 수 있을 때 성과의 실질적 축적과 성장을 꾀할 수 있음

-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실행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에 사업안정화에 대한 인식 공유와 지속성 담보 의지 필요

- 문화순회사업을 포함한 문화향유 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며 정책을 개발하고 조율해나갈 협의기구 필요
-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실행주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주체인

지역문화 수행처(문화재단 등) 간의 정책 협의와 조율이 가능한 “(가칭)문화향유정책협력위원회” 제안

〈표 4-2〉 (가칭)문화향유정책협력위원회 역할

구분	기관	역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향유 정책 관련 제반 제도 개선</li> <li>예산의 안정적 확보</li> </ul>
실행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순회사업 등 운영</li> <li>문화순회 프로그램의 관리 및 개발</li> </ul>
협력주체	광역 문화재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순회사업 발굴</li> <li>리서치 및 홍보</li> </ul>

#### 나.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

##### □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 대상 및 수요에 따른 매칭 구조 개선

- 순회사업 상호 매칭을 위한 시스템 개선 : 온라인 플랫폼 구조 개선 필요
- 순회사업대상처에 대한 지속적 발굴과 정보 업데이트 : 순회사업대상의 유형별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사업지의 기본정보를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정보를 축적 관리(예시)

〈표 4-3〉 사업지 기본정보 범주별 분류 예시

항목	희망 장르	형태	주요 수요계층	공간	희망 시기	회차	지역
정보	연극	놀이	노년층	군민 회관	9~11월	단발	충북

- 사업수행처(예술단체)의 활동 정보와 역량에 대한 정보 수집

- 각 분야 문화예술전문가들과 이 사업에 이해가 있는 지역 문화기획자들을 코디네이터로 매칭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 : 사업수행처의 역량과 특징점에 대한 사전 평가를 기반으로 적절한 수혜대상처와 연결

□ 대상자 발굴형 프로그램 : 사전준비 단계에 대한 지원 필요

- 2015년 이후 개발되기 시작하여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대상자 발굴형 프로그램의 경우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사업지를 찾아내고 사업준비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기획력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발굴형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현장에서의 확신이 부족하여 사전준비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업준비 기간 보장 : 맞춤형 사업과 사업 진행 시기의 차이를 둠
- 사전준비 단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사업지 발굴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책정(사업선정 이후 추후 지급)
- 코디네이터 조직의 활용 : 사업지 발굴 이후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의 멘토링 및 협의

다. 개방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신규 프로그램 도입

□ 수혜 집단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R&D형 시범프로그램의 도입

□ 해외 사례의 경우 한국과 같은 형태의 단순공급형 프로그램이 일률적으로 뿌려지는 경우가 극히 드문 케이스

- 사례 연구를 통해 본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문화향유 프로그램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오히려 특정 대상이나 집단에 대한 지속적 참여연구가 포함된 문화프로그램들이 이뤄지고 있음
- 현재 문화순회사업에서도 대상자 발굴형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참여관찰을 전제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음

□ 대부분의 해외 향유 프로그램의 경우 향유 대상자들에 대한 중장기적 리서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분명한 사업의 목표와 성과의 방향이 도출됨

- 현재의 공급형 사업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사업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
- 전체 사업 예산의 5~10% 내외를 활용하여 3년 **미만**의 중장기적 연구/개발형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지원
  - 특정한 사회적 이슈가 있는 지역이나 대상, 예컨대 자연재해를 맞은 지역이나 특수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대상자들의 사회적 박탈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기획형 문화향유사업으로 지원
  - 개발/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원 : 사전심의를 통하여 지원의 사유가 분명한 경우 지역 및 대상에 대한 일정 기간(3개월 ~ 6개월)의 현황 조사 및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원
- 단순한 프로그램 개발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타겟이 되는 향유집단의 문화적 상황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변화와 같은 연구가 포함
-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예술(기획)집단과 리서치 및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집단의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수행 조직 구성
  - 사업대상에 따른 종합적 지원 : 현황 및 이슈 분석의 결과에 따라 단수, 혹은 복수의 참여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획구조 마련 및 지원
  - 지속적인 연구 및 평가 : 문화향유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집단을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하여 문화향유 사업을 통한 대상집단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게 하여 문화향유 정책에 환류하는 동시에 문화향유의 사회적 효과를 입증하도록 함

### 신규 사업(모델) - 지역협력형 신규 향유 프로그램 개발

#### ① 개요

- 지역 자원들을 권역별로 네트워크 하여 순회형 향유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
- 예술가&기획자&향유그룹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대표 프로그램으로 완성도를 높임
- 단체 및 예술가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을 받아 예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지원예산과 프로그램을 확정
-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 워크숍을 기반으로 협업 구조의 장점을 극대화

## ② 진행

### 〈접수 및 심의〉

3개 이상의 예술집단(개별 예술인), 기획집단, 향유자그룹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서를 접수하여 심의

### 〈사전 단계〉(1개월)

선정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위원회와 사전협의 및 전문가 멘토링 진행  
프로그램 세부 내용 확정

### 〈프로그램 개발/제작〉(3개월)

공동워크숍 진행(3~4회)

프로그램 제작

### 〈순회사업〉(하반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향유 그룹에서 우선적 프로그램 진행(1~3회)

### 〈평가 및 확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우수 콘텐츠의 경우 추가적 지원으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보강(차기년도)

보강된 우수 콘텐츠의 경우 지속지원을 통해 타 지역과의 순회 및 교차 프로그램 진행 유도(차기년도)

지속지원을 통해 프로그램 수준을 높이고 향유의 범위를 확대함

## 라. 지역 협력을 위한 코디네이터 및 협력 체계 구성

- 현재의 탑다운(top-down) 방식의 매칭구조로는 지역의 필요와 세부적인 조정에 대한 한계가 있음
- 권역별 중간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 매칭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전국을 4대 권역 정도로 분할하여 영국의 CP(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 코디네이터 시스템과 코디네이터 조직을 구성하여 협력지원
-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지역 예술가(예술단체)와 지원조직 사이에서의 소통을 돕고 수혜대상처와 예술집단의 매칭 및 협업을 지원
  - － 이원화된 코디네이터 선발 : 문화예술계 전문가들과 사업 이해가 있는 지역 문화인력을 선발하여 코디네이터로 활용

## 라. 메세나를 활용한 재원의 확대

- 현재 일부 대기업들이 문화순회사업과 유사한 향유 사업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예술위원회 순회사업과의 적극적 협업을 정책적으로 유도하여 문화향유 전반의 재원의 “양” 을 늘리고 다각화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방송)홍보 등의 협찬/후원을 통해 순회사업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협업을 유도

#### 마. 문화소외의 원인에 따른 프로그램의 차별화

- 지리적 원인에 따른 문화 소외의 경우는 절대적 공급이 필요하며 따라서 현재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같은 공급 중심의 사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소외나 사회적 소외, 특수 소외의 경우는 각각의 소외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응하는 특화된 문화 향유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R&D형 시범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문화소외의 원인과 해결 방식에 대한 역량 축적

#### 바. 실적 위주의 양적평가 지표 및 평가시스템의 개선

- 기존의 양적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질적평가 지표의 개발
  - － 현재 대상자 만족도 조사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소외와 향유의 질에 대한 지표 체계 연구 필요
  - － 매년 이루어지는 평가에서 심도있는 평가에 한계가 있으므로 5년 주기 정도로 문화순회사업의 성과를 심도있게 평가하는 연구를 정례화
- 전문 모니터링 집단의 발굴 활용 및 상호 교차 평가의 필요
  - － 문화 순회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할 전문인력들을 선발하여 운영
  - － 관련 전공 대학원생 등 준전문인력으로 풀을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문화예술분야의 단기 일자리로 활용
  - － 기존의 프로그램 참여인력의 일정 숫자를 모니터링 및 평가에 활용

## 참고문헌

1.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사업성과평가단, 기획재정부(2015), 『2014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
2.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사업성과평가단, 기획재정부(2016), 『201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
3.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사업성과평가단, 기획재정부(2017), 『2016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
4. 이정덕(2001), 「문화향유 체계에 대한 뉴욕시 사례연구」, 『비교문화연구』 제7집 2호.
5.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커뮤니티 아트 진흥 방안 연구』.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2012 문화 정책 동향 분석, 일본문화관광정책: 2011년과 2012년』.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연구』.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4),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연구』.
9.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 『2014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성과평가연구』.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연구』.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6), 『2015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성과평가연구』.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6),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연구』.
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성과평가연구』.
14.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홈페이지([www.kacf.net](http://www.kacf.net)).
15. 더불어숲 축제,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togetherforest>)
16. 독서IN, 홈페이지(<https://www.readin.or.kr>)
17. LA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올라, 홈페이지(<http://www.laphil.com/education/yola>)
18. 옥천문화원, 홈페이지(<http://www.okcc.or.kr>)
19. 우락부락캠프, 홈페이지(<http://www.woorockboorock.or.kr>).
20. 움직이는예술정거장, 홈페이지(<http://artebus.arte.or.kr>).
21. 한화 예술더하기, 홈페이지(<http://www.artsplus.or.kr>).

## 부록

---

1. 자문회의 요약문
2. FGI (Focus Group Interview) 요약문

## 1. 자문회의 요약문<sup>15)</sup>

### 가. 1차 자문회의

회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날 짜 : 2017. 9. 29(목) 10:00~12:00</li> <li>□ 장 소 : 서울 혁신파크 미래청 2층 큰이야기방1</li> <li>□ 참 가 : (정책연구소) 염신규, 김은영, 안혜영 / (자문위원) 차재근, 라도삼, 김규원 / (예술위원회) 양효석 본부장, 김선욱과장</li> </ul>
회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 A : (지금까지) 창작영역의 반대 의미로서 ‘향유’ 라는 이분법적 개념 정리 있어왔다. 순회사업이 문진기금으로 들어왔으므로, 창작-향유의 중간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문진기금은 사실은 창작기금에 집중해야 한다 생각하지 만... 논쟁요소가 많으므로 생략)</li> <li>□ 연구원 : 단체 입장에서는 인건비 위주로 기금 지원되니 계속 같은 대상, 새로운 창작환경에 도움되지 않는다.</li> <li>□ 위원 A : 문화예술교육 강사제도와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가진다. 순회사업은 예술환경 지원 방향으로 가야 한다.</li> <li>□ 예술위 : 예술가 지원사업은 별도로 운영 중인데, 크게 예산이 늘지 않는다. 정부 입장에서는 창작기금에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 순회사업의 본래 목적은 문화의 민주화이고, 창작지원사업/예술인복지 사업이 별도 있기 때문에...사업방향의 전환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li> <li>□ 위원 A : 예술가 지원 차원의 향유사업으로 가야 한다. 기존 순회사업은 예술가(생존)에 도움이 됐을 수 있으나, 예술계 창작환경에 도움이 되진 않았다.</li> <li>□ 예술위 : ‘올해의 좋은 00’ 사업을 순회사업과 연계하면, 창작환경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도 순회사업과 유사성격이다.</li> <li>□ 연구원 : 200억*10년이면 큰 재원이데, 10년의 시간동안 그 만큼의 성과가 있었을까? 무료공연 이상의 의미가 있었나하는 질문 드리고 싶다.</li> <li>□ 위원 B : 성과를 데이터로 말하긴 힘들지만, 문화민주주의 전략은 중요하다고 본다.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그러나 이걸 과연 예술위가 해야 할까는 의문(예술위의 본래 목적)이 있다. 기대효과와 사업목적은 다르다.</li> <li>□ 위원 B : 향유사업 관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높다. 예술위 사업예산 분할해서 소외계층대상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과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구분 할 수도 있다. 지원효과도 있고, 당위성도 부여된다. 예술가 지원사업은 예술위가 하고, 향유사업은 지자체 고유사업화 시켜주자.</li> <li>□ 예술위 : 영국 예술위는 향유사업을 직접하고 있는 사례다. 부산의 경우 자체 순회사업을 하고 있다. 그 사업 때문에 순회사업이 아예 없어질 뻔 했다.</li> <li>□ 위원 C : 순회사업이 지특예산으로 넘어가도 상관없지 않은가? 순회사업 200억 원 예산 중 전체예산의 50% 정도는 지역이 설계할 수 있는 협치형 설계권을 갖게 하자. 예술단체/지역의 소극적인 태도도 극복할 수 있게 하자.</li> <li>□ 위원 A : 200억 원으로 수월성 높은 사업 하긴 힘들다. 굉장한 작품이 나올 수 없다. 그럴 바엔 참여형 공연(지역)으로 설계하는 게 나올 수도 있다.</li> <li>□ 예술위 : 순회사업이 2트랙(신나는 예술여행/방방곡곡 문화공감)으로 대상 중심</li> </ul>

15)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회의 발언내용은 익명처리 함.

- (농어촌, 고정시설, 학교)으로 정교하게 시스템화 되어 있다. 취지를 살리면서 순회사업을 창작과 연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고민이다.
- 진행자 :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 기존 순회사업은 시설(지역) 중심이다. 그러나 기금 성격이 바뀌면 일반 국민(다양한 결)이 대상이 된다.
  - 위원 C : 보편적 일반 시민대상 사업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제도 측면에서.
  - 위원 B : 사업은 균형성이다. 순회사업은 예술창작성보다 사회공헌성이다. 삶의 즐거움을 소외지역에서 높이려면 예술작품보다는 유명인이 가는 게 낫다. 소외지역에 가는 것은 맞지만, 전달체계는 기초재단에서 잘 관리 해 주고, 공급체계를 예술위가 잘 만들자. 플랫폼 형태로 사업위계를 소외계층나눔에서 공연나눔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 위원 C : 낙인효과의 역작용 측면에서 계층이 아니라 지역으로의 확장이다. 시간적 소외(근무환경/ 3부제, 환경미화원 등 근로환경에서의 소외)계층은 낙인 효과와는 별개이다. 틈새 소외를 찾아야 한다. (자원은 확장되지 않지만) 경제/사회/지리소외는 두고...문화소외의 외연 확장할 필요가 있다.
  - 진행자 : 복지사업 분야에서는 공급형 프로그램이 오히려 과잉이다.
  - 연구원 : 자바르페의 사업에서 교훈 찾을 수 있다. 완성형, 공급형 공연은 좋은 공연이 될 수 없었다. 지역조사를 많이 해서 지역에 맞는 공연이 필요했다. 시스템 자체가 공연팀이 지역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한 단체의 역량에 의존하기엔 정교한 세팅은 아니다.)
  - 예술위 : 지역(대상)과 공연단체 공동 콘텐츠 개발과 같은 모델사업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겠다.
  - 진행자 : 전체 예산의 10~20% 정도 2~3년 정도 콘텐츠 개발하면서 가는 기획형 공연을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 예술위 : 다년제 지원으로 우수단체와 지역(대상)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비 포함해 다년제 지원은 고민 해 볼 만하다. 그러나, 단체집중(서울) 현상이 심각하므로,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17개 시도에 N분의1로 줄 수 밖에 없다.
  - 위원 A : 중앙 집중적인 시각이다. 한 프로그램에 약 3,000만원 지원되니, 서울 단체라도 좋으니(\*서울 근거지 단체지만, 지역 소재 대상 지원할 경우) 지역/대상이라도 묶을 수 있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약 40개 단체 5억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다.
  - 위원 B : 국민시각에서는 익숙한 문화가 좋은 것이다. 위원 A님 의견이 이상적일 수 있다. 순회사업이 아니라, 연결 사업이 될 수 있으니, 따로 사업을 별도로 개발하는 게 낫다. 사업 취지를 살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철저히 제도 안에서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월성(혹은 대중성), 공헌성 있는 단체가 있어야 한다. 문화소외는 오히려 순회사업으로 풀 수 없다. 순회사업은 지역으로 풀어야 한다.
  - 위원 C : 대중성 측면에서는 지역단체/수도권단체 구분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지역협치 전제로, 기초, 광역재단 파트너 별로 편차가 있으므로, 중간 지원인력 활용이 고려 가능할 것 같다.
  - 예술위 : 문화향유사업에서 예술교육은 별도인데, 예술교육은 부분적으로 수용할 여지가 있다.
  - 위원 A : 대중성은 다른 분야에서 채워지고 있다.
  - 위원 B : 기초문화재단에 힘을 주자는 의도였다. 기초문화재단에서 소외의 공백을

찾아내고 역으로 제안 할 수도 있다.

- 위원 A :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다. 기존 순회(대중성)사업과 상호작용이 그것이다.
- 위원 B : 그럼 '순회' 명칭은 떼고, 소외지역 문화다양성 사업 / 문화활성화 사업으로 명칭 변경을 고민할 수 있다.
- 위원 A : 본 연구에서 공모세부지침 정도가 대안으로 나오면 되지 않을까.
- 예술위 : 문화다양성 사업과 같은 지역주관체 형태겠는데, 부작용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 위원 C : 공모를 통한 협치형(광역형) 사업을 하면 무리 없지 않을까.
- 예술위 : 잘못하면 지역매칭사업으로 갈 수 있다.
- 위원 B : 문화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실행권한이 많은 것 같다. 70% 정도다. 매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협치 모델인데, 아직 안정화 전이다.
- 예술위 : 지역마다 실행능력편차가 많다. 지역별 PM 세워서 양질을 관리 할 수는 있겠다.
- 진행자 : 기초 없는 지역도 많지 않나?
- 위원 B : 광역만 대상으로 가도 되지 않나? 전달체계에서 광역과 기초문화재단을 고민해봐야 하지만, 과중할 수 있으니 고민해 봐야 한다. 광역체계에서 전담하게 하자. 기초는 역량이 안 될 수도 있다.
- 위원 A : 지자체가 손댈 수 없는 영역도 많다. 예술위 직접 사업영역에서 별도 범위(영역) 따로 만들든지, 통일하든지(교정시설, 산단, 군인)해야 한다.
- 위원 B : 지역사업과 순회사업으로 투 트랙은 어떤가.
- 위원 C : 예술위 직접사업과 지역 협치형(또한, 3년 혹은 다년지원 기획프로그램)이 그것이다.
- 예술위 : 광역시스템화하면 매칭 될 수 있으니, 걱정스럽다.
- 진행자 : 방법론적으로 찾아야 한다.
- 연구원 : 문화향유사업 통해서 문화해득력을 높이는 게 가능한 목표인가?
- 위원 B : 향유의 '유' 가 '있을 유' 다. 생활문화공동체 사업과는 접근전략이 다를 뿐이지만, 문화해득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삶의 활력을 채우는 방식이므로, 2개의 자극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맥락에서 순회도 중요하다.
- 예술위 : 사업효과 측면에서는 순회사업이 높다. 창작자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인 가는 별개의 고민이다.
- 위원 B : 본 사업은 창작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고민을 버려야 한다. 공헌성이 필요한 곳에 예술가가 동원된 측면이 있다. 창작 지원은 파생효과로 생각해야 한다. 창작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생각하면 쿼터제 도입 등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아진다. 장기적으로 플랫폼 사업으로 생각하고 그 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다.
- 연구원 : 소외의 개념을 세부화(확장)하고 넓힐 지점은 없는가?
- 위원 A : 디지털세대는 수준 높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세대이므로, 자기 표현적 측면에서 실현욕구가 높다.
- 위원 B : 새로운 매체가 오히려 예술DNA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문화소외개념은 쓸 수 없는 개념이다. 예술관람 소외가 개념적으로는 맞다. (순회사업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소외지역과 소외시설로 명확하게 접근해야 한다.
- 위원 C : 보편적 국민 대상에서 지역을 강조하면 좋겠다. 전 지역 대상 사업으로 개념전환이 필요하다.

- 위원 A : 뿌린다는 정교한 기획이 있는 큐레이션이 필요하다.
- 위원 B : 장기적으로 한 꼭지 정도는 소외지역 문화발굴 사업이 필요하다.
- 예술위 : 문진법 ‘문화적 소외계층’ 정의는 (시행령 포함)경제/사회적 소외를 규정하고 있다. 문화기본법과 문화복지증진의 장은 내용이 부실하다.  
도시서민, 자영민, 노인, 청소년은 지역과 상관없이 소외계층이라면 순회사업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논리적 접근 필요)
- 위원 B : 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사업 있지 않나.
- 진행자 :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위원 B : 도시문제는 도시적인 관점으로 풀어야 한다.
- 연구원 : 문화향유VS문화예술교육과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하나?
- 위원 B : 최소한의 범위에서 용어정리가 필요하다. 향유사업에 문화예술교육이 결합되는 순간, 교육(장기성, 책임성)이 아니라 체험이 수용된다 해야 한다.
- 위원 C : 소극적으로 개념을 좁혀야 한다.
- 진행자 : 문화향유 개념정리에 대한 자문회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모델까지 제안되는 시간이었다. 추후 2·3차 자문회의를 통해 오늘의 논의를 더 발전시키겠다. 바쁜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 나. 2차 자문회의

구분	세부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17년 12월 19일(수) 15:00~17:30</li> <li>□ 장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3층)</li> <li>□ 참석 : 총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위원회 : 김선욱 과장</li> <li>- 연구진 : 염신규, 이동근, 이경아, 안혜영</li> <li>- 자문위원 : 고영직 (문학평론가), 성장순(우금치 대화협력실장), 최재우(금수문화예술인마을 운영협의회 대표), 안태호(전 제주문화재단 팀장), 우지연(한국문화의집협회 이사)</li> </ul> </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연구내용 요약문 설명</li> <li>◦ 문화향유사업 개선 방향 제시</li> <li>▲안정적 재원구조와 이에 따른 정체성 확립 ▲매칭시스템 개선 ▲공급형 프로그램 확산에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하는 R&amp;D형 시범프로그램 도입 ▲지역 협력을 위한 코디네이터 및 협력 체계 구성 ▲실적 위주의 양적평가 지표 및 평가시스템의 개선</li> </ul>

## □ 위원B

- 문화순회사업은 문화격차 해소 관점에서 분명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체감된다. 현장에서 만족도도 높다.
- 맞춤형/발굴형 모두 현장에서의 지속성 보장이 아쉽다.
- 순회대상처의 새로운 발굴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문화소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일 중요하다.
- 예술위에서 매칭을 해주는 것과 예술단체가 직접 발굴하는 발굴형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여전히 신나는 예술여행에 대한 사업홍보 및 해설이 순회대상처에 필요하다.

## □ 위원A

- 본 사업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정책사업으로서의 철학이 부족하다.
  - 사업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 '만족도 조사' 로 본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철학에 근간한 정책방향을 잡고 양적·질적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미국 갱생시설 프로그램 이후 사용한 매력의 지표(의미를 평가·추적조사하는 인문학적 방식) 같은 방식도 참고해 볼 만 하다.
  - 한국의 공급형 순회사업이 해외사례에서 찾기 힘들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확한 지역리서치 없는 공급형 방식은 한계가 있고, 예술단체가 자기주도성 사업에서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문화 분권시대를 준비해야 함은 물론, 지역의 준비정도에 따라 과도가 있을 수 있다.

## □ 위원E

- 발굴형 사업 시 매개 거점 역할은 필요하다. 지역에는 사회복지 영역 등 다양한 창구가 있으므로, 기존 지역 네트워크들과 협업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발굴형사업의 구조 자체를 바뀌어야 한다. 지속적인 관계망이 지역과 예술단체 간 생겨야 한다. 사업 이후에 지역에 있는 문화단체나 시설 등과 연계되도록 연결망을 구축해 일회성 소외사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 □ 위원C

- 사업 정체성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국민향유사업과 예술진흥사업은 등가 관계가 아니다. 사업명칭에 명시되어 있듯 명백한 '소외계층 문화향유' 사업이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세부 방향이 정돈되어야 한다. 성과위주 소외극복이 아니라 10명의 예술가가 5명의 소외지역 사람들을 찾아가서 공연이 가능할 정도의 '소외극복' 방향에 대한 설득기반과 합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사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잡지 않으면, 지역 코디네이터가 생겨도 자기역할을 혼돈 하는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 다년간 지원은 소외계층에 맞는 작품 제작 가능하므로, 다년간 지원은 긍정 검토되어야 한다.

## □ 위원D

- 시범사업은 수혜집단에 대한 연구를 더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연 단위 프로그램 개발 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업의 질적 평가를 위해 샘플 추적조사 시도 해 볼만 하다.
- 지속성이 중요한데, 재원의 안정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순회사업도 지속성을 보장하기 힘들다.

## 2. FGI (Focus Group Interview) 요약문<sup>16)</sup>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017.11.22.(수) 16:00</li> <li>□ 장 소 : 예술가의 집 세미나실</li> <li>□ 참 가 : (정책연구소) 염신규 소장, 김은영 연구원, 이동근 연구원, 이경아 연구원 (예술단체) 임정빈(달나무 대표), 박용희PD(정가악회), 박정선 이사(책 친구협동조합), 이찬영(인천 자바르떼) (예술위원회) 김선욱 과장</li> </ul>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자 : 복권기금 소외계층 중심에서 2018년 문예기금으로 편성되면서 대상층이 확대되었다. 본래 문예기금 본질은 예술창작활성화에 있어, 그 방안도 같이 검토해주시길 바란다.</li> <li>—중간보고서 요약발표—</li> <li>□ 진행자 : 우선 사업 참여하면서 느낀 개선점을 말해주시길 바란다.</li> <li>□ 단체A : 기본방향이 문화해득력, 감수성 신장인데, 예술단체 활성화나 관객증가에 대한 평가도 없는 상황에서 문화해득력이나 감수성 신장에 대한 기준이나 연구결과가 있나?</li> <li>□ 진행자 : 평가지표가 문제이다.</li> <li>□ 예술위 : 소외계층에서 일반인대상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해야 해서 그렇다.</li> <li>□ 단체A : ○○는 전통공연이라 지역에서는 객석이 빈다.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한 첫 느낌은 다른 사업에서 해결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이다. 즉 다양한 사업들이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참여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까지 그래야 하나라는 것이다. 지역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좋겠다.</li> <li>□ 진행자 : 이 사업에 국한하여 향유와 창작에 대한 지원이 많긴 한데 전체적인 가름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구별 없이 개별 사업만 진행하다보니 사업의 한계와 뚜렷한 목표가 불투명하다.</li> <li>□ 단체C : 이 사업이 이관되다가 결국 예술위로 오게 되었다. 인천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시와 기관이 받았다. 그 차별성은 예산인데, 시는 150만원이고 기관은 그것보다 더 높았다. 조정 방안이 더 필요하다. 승자독식의 문제가 있는데, 상품 하나 잘 만들면 여러 지원 사업에 다 된다. 그보다는 지역재단과 협력하여 전체 예산을 분할하는 것도 필요하다.</li> <li>□ 단체D : 차별성이 없지 않나?</li> <li>□ 단체C : 지역단체와의 매칭 가능성을 고민해봐야 한다. 본 사업에 한 단체가 10회를 넘기면 안 된다. 기간이 한정 되어 있어, 5개월간 18회로 10대1의 경쟁을 해야한다. 니즈가 있으니 소외그룹을 끌어안아야하고 조건 좋은 무대는 거의 없다. 기회를 확장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li> <li>□ 예술위 : 12억 예산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공연하도록 하고 최대 백만 원 지원하고 있다.</li> </ul>

16)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회의 발언내용은 익명처리 함.

- 단체A : 사업대상은 소외계층인데 성과지표는 본 사업 같지 않다. 대상은 정작 sns안하는 사람들인데 페이스북 홍보나 후기 올리도록 하는 홍보와 평가방법이 문제이다. 계량, 수치 중요시하는데 분교 4개뿐인 지역 등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 예술위 : 올해는 그런 문제 없을 것이다.
- 단체D : 소외계층 눈높이와 상관없이 성과 위주이다. 발굴형과 맞춤형이 있는데 사업계획서 낼 때는 지역을 미리 정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발굴할 수 있는 정보를 줄 줄 알았는데 정해진 지역에 갈 수밖에 없다.
- 단체A : 주식회사와 전문기획사 간 어떤 차이가 있나?
- 예술위 : 올해는 발굴형이라던지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 단체B : 도서지역에 발굴형으로 갔었는데 수혜대상이 훨씬 적은 곳으로 단 3명이라도 소수를 위해 공연하고 오는 것이 의미 있지 않나 싶어 발굴했다. 그러나 분교 위주로 찾아가서 아쉬웠다. 현장에서는 아이들과 놀길 원했지만 정해진 시스템대로 움직여야 했다.
- 연구원 : 경기도권에서 발굴형을 하고 있는 데, 선정하면서 가능한 네트워크를 찾았지만 이미 행자부, 농협 등 사전에 신청한 곳이 많았다. 그래서 결국엔 매칭이 되었다. 지역의 작은 공연은 재밌었으나, 농협은 신청이 많은 거에 비해 몇몇 농협은 교육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기존 마을 축제 연계도 좋은 형태라고 본다. 발굴이 매칭이 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겨도 좋을 것 같다.
- 진행자 : 현 지표는 90년대 이후 성과위주의 행정구조에 기인한 것이다. 지표에 대한 개선점을 어떤 것이 있을까?
- 예술위 : 신규가 몇 개인지, 처음 간 곳이 몇 개인지, 몇 회인지 등 다양하다.
- 단체A : 작품성이 중요하다. 물론 순수예술 단체는 거꾸로 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 진행자 : 질적 지표가 과연 평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문화예술경영학회 심포지엄에 갔더니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계량화시켜서 숫자로 평가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안한다고 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단체A : 순회대상처 다수를 차지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모객이 된다. 감상에 대한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체 선호도에 따라 매칭된다.
- 예술위 : 개런티가 높다 보니 순수예술도 선정은 되는데 심지어 발레도 체험을 넣는 추세이고, 뮤지컬도 음악극으로 분류하곤 한다.
- 단체A : 그런 고민이 된다.
- 단체D : 문학분야의 파이가 적다. 횡수, 예산이 적어 텐트 혹은 원두막에서 작가들과 책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사진으로 보면 별 것 없다. 장르별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진행자 : 문학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 단체D : 주로 북콘서트를 많이 한다.
- 단체C : 맞춤형 지역 준비 잘된 곳도 있다. 임대아파트를 갔었는데 준비가 잘 되어있었다. 특성을 잘 알면 재밌게 할 수 있다. 그 곳에서는 무용분야를 선호하지 않았다. 과도한 무대설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평가를 정성적으로 하려면 모니터링 늘려야한다. 예술가 파견 사업과 협력할 수도 있고, 청년 인턴 사업과 매칭하거나 문화부의 인턴 사업 활용 가능하다. 50%만이라도 모니터링 필요하다.
- 단체D : 모니터링 환영한다.
- 단체C : 예술위 자체 내에서 예산 떼서 하지 말고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교육시켜

- 서 모니터링해도 좋을 것 같다.
- 연구원 : 이 연구와 별도로 경기문화재단 사업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같은 단체를 3년 하다 보니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이야기한다. 장기적인 인력수급, 교육, 활용방안까지 있어야한다. 단기성 아르바이트는 한계가 분명하다.
  - 예술위 : 단체가 워낙 많아서 모니터링은 외주로 진행하고 있다.
  - 단체D : 어린이용 설문조사지가 필요하다.
  - 단체C : 선정된 단체가 서로 보는 것도 방법도 효과가 좋다. 인천문화재단에서 했었는데 같은 분야끼리의 모니터링은 좋았다.
  - 연구원 : 같은 분야끼리는 효과가 있다.
  - 단체D : 현장 컨설팅으로 연결될 수 있다.
  - 진행자 : 컨설팅 효과가 애매하다.
  - 단체C : 모니터가 2~3번 같은 영역에서 보면 알 수 있다.
  - 단체D : 모니터는 미리 약속하고 단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불시에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단체C : 정량에서 정성적인 평가로 가야한다.
  - 진행자 : 정량적 평가의 하수가 있다. 정성적 평가는 전문가에게 믿고 맡겨야 한다.
  - 단체A : 거리예술 공연은 전문가 8명쯤이 평가서를 보내줘서 도움이 많이 된다.
  - 단체D : 분야별 전문가가 평가해야한다. 전문가와의 소통도 필요하다.
  - 진행자 :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 지원 체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역량 인정받은 단체는 1년 제작 지원은 어떤가?
  - 단체A : 공연예술창작사업과의 연계되면 좋지 않을까. 대중성 극복하지 못한 순수예술도 아직 힘든데 또 새로운 창작은 아닌 것 같다.
  - 단체C : 배우 3명으로 시작한 작품이 선정되면서 작년 처음 통영극장에서 공연했다. 콘텐츠 개발해서 키울 수 있었다. 긍정적 모니터링 통해서 한층 더 개발될 수 있으면 위원회에서도 본 사업을 통해 작품 개발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창작산실은 높은 벽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 단체D : 자생력 신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있으면 좋겠다.
  - 진행자 :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이다. 방향성과 원칙이 사라지는 것이다.
  - 단체D : 홍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 단체C : 어느 기관에서는 올해 되면 내년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니즈가 있는 곳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실효성도 있다.
  - 단체C : 컨소시엄은 권장해야한다. 파복과 연결해보았다. 하고 싶어하는 곳이 많고 마을단체 발굴할 수 있다. MOU도 가능하다.
  - 연구원 : 지역코디네이터도 필요하다.
  - 단체C : 권역은 안 맞고 광역은 맞을 듯 싶다. 서울시나 경기도 정도이다.
  - 진행자 : 예술위에 지역협력관이 있으니, 활용하고 코디네이터를 배분하는 것이다.
  - 단체A : 음악학교로 평창에 매년 간다. 평창 아라리라는 평창 관련 작품을 만들어 본 사업과 매칭되는 지역이 있으면 진행해보고 싶다.
  - 진행자 : 문재인정부 들어 공동체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다.
  - 예술위 : 지역 재단, 지자체 이용, 큐레이터, 협동조합 등 모델이 필요하다.
  - 단체C : 찾아가는 문화활동 했던 담당자와 지역에 있는 코디네이터 가능자 찾아서 시범사업으로 해봐야한다.

- 예술위 : 맞춤형, 발굴형에서 확대되면서 작품이 개발되면 좋을 것 같다. 지역을 이해하고 컨소시엄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 진행자 : 예산의 안정화 필요하다. 회당 500~700만 원 공연비 수준 어떤가?
- 단체A : 출연료만 450만 원 정도이다. 대부분 1년에 1~2번인데 본 사업은 선정되면 10회 이상 할 수 있어서 복권당첨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 단체C : 적은 수준은 아니다. 부평풍물연출을 했는데 공연 공모팀에게 많이 줘야 250만 원이고 농악단은 작년까지 300만 원 수준이었다.
- 예술위 : 전수모니터 결과 작년에 회당 500정도 받았던 단체가 떨어져서 같은 공연을 다른 사업에서 100에 하는 경우가 있었다. 참여자 사례비를 줄이는 것 같다. 내년 공모는 교차지원 금지시킬 예정이다.
- 단체D : 7년 전에 풍물, 모듬북, 민요 12명에서 공연비 350원에 했다.
- 연구원 : 무료사업이라는 인식은 어떻게 보는지?
- 단체D : 소외계층사업 자체가 돈 낼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 단체C : 유로는 어렵다. 그러나 직장배달콘서트 같은 경우 국공기금 쓸 필요 없지만 중견기업이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
- 진행자 : 심지어 국회 위원회관 공연도 있었다.
- 단체C : 규모 있는 공연은 문화회관과 협력 가능하지 않나?
- 연구원 : 자활한마당도 연결 가능하다.
- 단체C : 콘서트 확장도 가능하다.

